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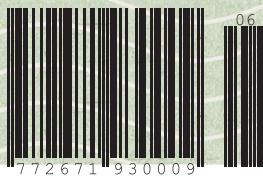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06

2021 June  
Vol.541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위한 헌신



9 772671 930009

ISSN 2671-9304

# Contents

2021 June  
Vol.541

시선이  
닿다

일상을  
펼치다

세상을  
품다

소식이  
온다



## COVER STORY

교정본부와 교정공무원은 코로나19 확진 수용자가 완치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국가와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위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참여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웹페이지를 통해 독자 의견 송부와 참여 코너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교정 ZOOM IN	04
경북북부제2교도소	
생각의 방향	10
자신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신만의 헌신으로	
지금, 이 사람	12
밴드 '이날치'	
별별 알고리즘	16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헌신의 힘	



부캐를 부탁해	18
목공예 체험	
법무연수원 교위 문규종	
서울구치소 교위 권미경	
선배에게 듣다	22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감 김도년	
교정인 원픽	26
그대들 '덕분에'	
어려움을 넘겼습니다!	
힐링 메신저	30
'비경의 고을' 청송	
지구 초대석	34
플로깅 & 채식 라이프	
물음의 소통	36
직장인은 '부캐'를 원한다	



관계 반창고	38
잠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알쓸꿀잡	40
더위와 장마를 대비하는 여름 준비 편	
머니 레시피	42
'주린이'에게 해 주고 싶은 말	
인문학 살롱	44
TV가 아닌 넷플릭스 보는 시대	
오늘의 건강	46
당신의 귀에서 울리는 건강 적신호	



교정 이모저모	48
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대나무숲 일기 1	50
청주교도소 교사 박재형	
대나무숲 일기 2	52
교정 리포트	54
교정 News	58
모범 공무원 소개	65
독자 퀴즈 및 이벤트	66



월간 〈교정〉 웹진  
<http://cowebzine.com>

발행인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1년 06월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월간 교정 2021년 6월호 Vol.541  
[www.corrections.go.kr](http://www.corrections.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http://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http://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교도소24시](http://www.youtube.com/교도소24시)

카카오스토리  
[story.kakao.com/ch/mojcor](http://story.kakao.com/ch/mojcor)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간 〈교정〉은 웹진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선이 닿다

• 교정 ZOOM IN

글 편집실 사진 이정도

##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국내 유일의 중경비 교정시설로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수용 관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수용자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교정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영롱하게 빛나는 헌신과 희생의 정신

지난겨울, 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은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공무원들은 헌신과 희생의 정신으로 수용자들을 돌보며, 완치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한 끝에 수용자들을 서울동부구치소로 무사히 복귀시켰습니다.



##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과 내면의 평화를 돋는 심성순화 프로그램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수용자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안정된 수용 생활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도서관, 아리랑캠프, 명화 전시 등 다양한 심성순화 프로그램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 철저한 보안 근무와 엄격한 수용 질서 확립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철저하고 엄격한 보안 근무와 수용 질서 확립을 통해 교정사고를 예방합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용 관리 계획을 수립해 선진 교정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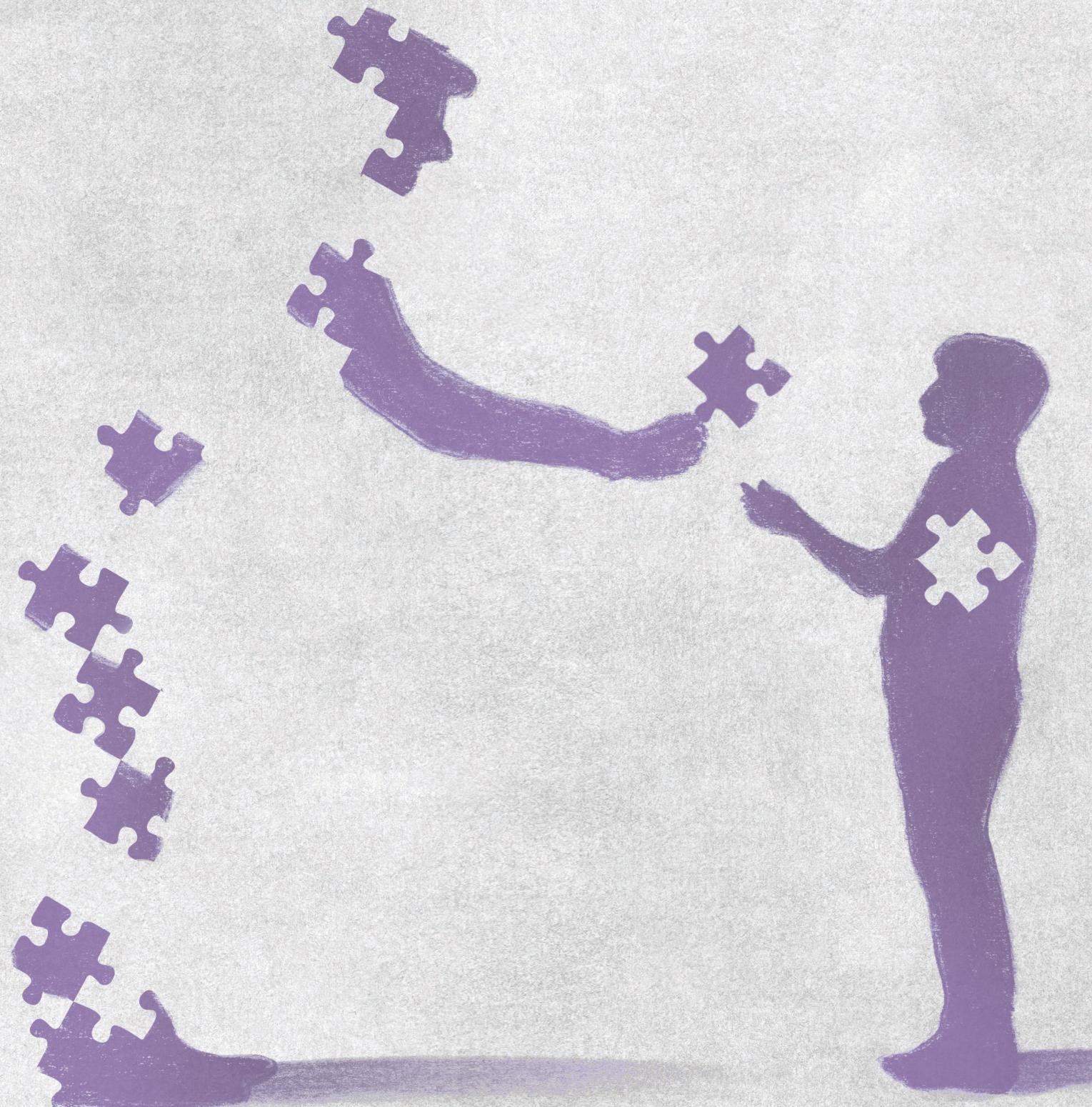
# 자신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신만의 헌신으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작은 농장을 꾸리며 소박하게 살아가던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고 홀로 황무지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 황무지에는 한때 울창한 숲과 아름다운 계곡이 있었고 사람들이 살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사라지면서 다른 생명도 하나둘 떠나고 황폐하게 변해 버렸습니다. 남자는 죽어 가는 땅을 다시 살리는 방법은 나무를 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넓은 황무지에 혼자서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매일 튼튼한 씨앗을 골라 땅에 심었고 그중에 몇몇이 쑥을 틔웁니다. 그 쑥을 정성스레 돌보고 가꾸자 작은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어린나무는 남자의 키를 훌쩍 넘기고 작은 숲을 이룹니다. 숲은 조금씩 주변으로 퍼져서 황무지를 가득 채웠죠.

나무가 돌아온 자리에는 물이 흐르고 꽃과 풀이 자랐습니다. 나비와 벌, 새들이 날아들고 떠났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됩니다. 30여 년의 세월 동안 혼자 나무를 심어 온 사람, 황무지를 다시 숲으로 만든 사람은 프랑스 작가 장 지오노의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그가 만든 기적은 소설 속 이야기라서 가능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메마른 땅을 숲으로 만들고, 사막을 초록 숲으로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대단한 부도 지위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대가 없이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시골 마을에 살던 한 남자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 그러나 거대한 돌산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산만 없었으면 병원에 금방 도착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산을 빙 돌아서 가야 했던 바람에 시간이 늦어졌고 결국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깊은 슬픔에 빠져 있던 남자는 누군가 자신처럼 돌산에 가로막혀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기리는 마음을 담아 돌산에 길을 내기로 합니다.

모두 불가능하다고 말렸지만, 남자는 매일 망치와 정을 들고 혼자서 묵묵히 돌산을 깎았습니다. 그렇게 산을 깎은 지 22년, 그는 누구나 오



갈 수 있는 넓고 큰 길을 만들어 냅니다. 먼 거리를 걸어야 했던 아이들은 좀 더 편하게 학교에 갈 수 있고, 아픈 사람들은 더 빨리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해냈지만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남자. 그는 다만 아내와 자신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름 모를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50년 동안 매일 절벽에 오른 남자도 있습니다. 그가 살던 곳은 아름다운 기암절벽 때문에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만큼이나 많이 찾아오는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산책하듯 절벽을 올랐습니다. 누군가 어두운 표정으로 혼자 있으면 가만히 다가가서 인사를 건넵니다. 그러곤 자신의 집에서 차 한잔하지 않겠느냐며 초대를 하죠. 외로움과 절망으로 절벽 끝에 섰던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누군가 자신을 구해 주길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남자의 친절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대접받고 함께 평범한 일상의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고 건강 때문에 절벽을 올라갈 수 없게 됐을 때도 남자는 매일 절벽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혼자 있는 누군가 보이면 구조대에 연락을 해 줬죠. 50년 동안 그가 구한 사람은 수백 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남자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의 시간과 마음을 기꺼이 내줬습니다.

설치 미술가 서도호 작가의 <floor>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작품 이름처럼 전시실 바닥에는 투명한 유리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관람객은 누구나 그 위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유리판 위에 올라서서 고개를 숙이면 발아래 뭔가 보입니다. 처음엔 평범한 깔개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손가락만 한 크기의 플라스틱 인형들입니다. 사람 모양의 인형들이 유리판 아래에 빼곡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죠. 인상적인 것은 인형들의 손 모양입니다. 다들 만세를 부르듯이 양손을 쭉 뻗어 유리판을 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나를 밑에서 지탱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사는 일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분들의 헌신과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대가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런 작은 영웅들 덕분에 세상은 좀 더 괜찮은 곳이 되어 갑니다.

시선이 닿다

•  
지금, 이 사람

글 민경미 사진 김인규

## 익숙하지 않은 것의 매력을

### 익숙하게 전하는 사람들

밴드 '이날치'

바야흐로 잘 섞어야 터지는 시대다.

경계를 분명히 했던 독자적인 영역이

어깨를 견고 서로의 장점을 결합해

시너지를 발휘하는 게 일종의 트렌드로

정착했다. 기업과 기업, 기술과 기술은

밀할 것도 없고 교집합이라곤 찾아볼 수

없던 장르와 사람들이 협업을 통해 흥미로운

의외성을 선보이는 것. '1일 1범'으로

전 세계인을 어깨춤 추게 한 '이날치'의

흥행도 알고 보면 탁월한 협업,

즉, 영리하게 잘 섞었기에 가능했다.



#### 밴드 '이날치'

이날치라는 이름은 조선 시대 이름난 명창 이날치에서 가져왔다. 2019년 5월 서울 이태원에서 단독 공연 <들썩들썩 수궁가>를 진행했고, 정규 1집 <수궁가>에 이어 싱글 '여보나리'를 냈다.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흥겨운 춤을 결합한 네이버 온스테이지의 2019년 온라인 공연은 당시 조회 수 1,421만 회를 기록했다. 또 서울, 부산, 전주 등 전국 도시를 돌며 찍은 한국 관광 해외 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는 총 조회 수가 1억 회를 넘는다.

#### 각자의 내공이 섞여 이날치로 날다

"세상에 평! 하고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배우 윤여정 씨가 지난 4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 이 말은 인기란 갑자기 터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간의 노력이 깔려 있을 때 가능하단 의미를 담았다. 그런데 2019년 등장한 밴드 이날치의 존재감과 인기는 예고편도 없이 한순간 폭죽처럼 터졌다. 동시에 제각각의 이유로 뜬그라들었거나 애초 있는지도 몰랐던 흥이 이날치라는 알람에 일제히 깨어났다. 대표곡 '범 내려온다'의 후렴구인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는 돌림노래처럼 이 입 저 입에서 흘린 듯 흘러나왔고 그 리듬에 전 세계인의 어깨가 들썩였다. '희한하게 익숙하고 아름답게 낯설다고 말한 BBC라디오를 비롯해 이날치를 조명하는 언론의 평도 이전의 문장과는 사뭇 결이 달랐다. '전에 있던 것으로 전에 없던 것을 만들다', 'K흥을 이끈 국악밴드', '범 내려오고 흥 올라왔다' 등이 대표적.

소리꾼 안이호 씨는 여기에 최근 한 걸그룹 멤버가 유튜브에서 이날치를 '사람들 속에 숨어 있던 끼를 열어주는 오프너'라고 표현한 것이 유독 신선하게 다가왔다 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바라보는 이날치 말고, 이날치는 이날치를 어떻게 정의할까. 베이스 연주자이자 프로듀서로 밴드를 이끄는 장영규 감독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의 매력을 익숙하게 들려주는 사람들"이라고 운을 뗀 후 다음 말을 이어 붙였다.





“이날치는 전통음악인 판소리로 대중음악을 하는 밴드예요. 그렇다고 판소리에 비중을 더 실는 게 아니라 각각의 장점을 파악해 잘 드러나도록 섞죠. 그래야 빛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멤버 각자가 오랜 기간 연마해 온 장점을 결합해 판소리로 만든 ‘춤출 수 있는 팝 음악’이 이날치의 색깔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평! 하고 일어나는 일은 없고, 이날치 또한 멤버 저마다의 내공이 이날치라는 이름으로 잘 버무려져 특유의 신묘하고 맛깔스러운 리듬과 비트, 재미와 인기로 전무후무한 K홍을 터트린 것이다.



#### 탁월한 협업자들의 의기투합

베이스(장영규), 드럼(이철희) 두 악기와 네 명의 소리꾼(안이호, 권송희, 이나래, 신유진)으로 구성된 이날치는 2018년 말 ‘수궁가’를 모티브로 한 음악극 <드라곤 킹(용왕)>에서 함께 작업한 것이 인연이 됐다. 다만 어느 밴드가 이름을 갖고 나름의 계획을 세워 활동에 나서는 것과 달리 이날치는 ‘공연해 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다가 공연계의 러브콜이 쇄도하는 등 일사천리로 일이 커지면서 뒤늦게 이날치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럼에도 베이스와 드럼이 만들어 내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리듬에 네 보컬의 소리가 원래 한 몸이었던 것처럼 맛깔스럽게 잘 붙는 이유는 멤버들 모두 풍부한 협업의 경험을 쌓은 덕분. 그중에서도 장영규 감독은 불교음악과 가면극, 궁중음악 등을 다룬 ‘비방’, 민요와 록을 접목한 ‘씽씽’ 등 국악과 현대음악을 섞은 밴드 활동을 꾸준히 해 왔다.



2013년에는 ‘탁월한 협업자’라는 제목으로 일민미술관에서 전시까지 했는데, 예전부터 연극, 무용, 미술, 영화 분야의 예술가들과 한데 섞여 놀면서 확장성과 더불어 협업의 묘미를 터득하게 됐다는 것. 이철희 드러머는 그런 장영규 감독과 ‘어어부 프로젝트’와 ‘씽씽’을 함께 하며 자연스레 이날치까지 오게 됐다. 장르를 섞는 데서 새로운 재미를 발견한 건 네 명의 소리꾼도 마찬가지. 이들은 모두 소리꾼으로서 소위 엘리트 코스라 불리는 교육과정을 거쳤지만, 뮤지컬과 음악극 등 타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자신의 영역이 넓어지고 이후 삶의 궤적이 바뀌는 경험을 했다. 이처럼 협업에 대한 멤버들의 긍정적인 경험과 열린 마음이 이날치의 동력으로 작용한 것. 장영규 감독은 분야는 다르지만 교정공무원에게도 이런 시각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조언을 건넸다.

“장르를 섞고 협업할 때 중요한 점 중 하나는 필터를 걷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통은 국악이나 클래식을 엄격한 장르로 구분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이들 장르도 대중적인 재료로 보는 훈련을 해 왔어요. 같은 맥락에서 교정공무원도 관계에서 필터를 제거하면 좀 더 마음을 열고 수용 범위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요?”

**수궁가에 별주부가 있다면 우리 사회엔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들이 직접 만든 휴대폰 거치대와 스피커, 펜 선물에 돌아가며 나무 향을 맡고 성능에 흡족해하던 멤버들은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교정시설과 교정공무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다는 말과 함께 따뜻한 응원을 잊지 않았다.

“우리가 누리는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주시는 누군가의 도움 덕분이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제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교정공무원분들 덕분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 수 있게 됐어요.”(신유진)

“저희 음악에 등장하는 별주부도 감옥을 지키는 벼슬 중 하나인 전옥주부로, 지금의 교정공무원이죠. ‘수궁가’에서는 감옥을 관리하던 별주부가 용왕이 병들어 나라에 큰 우환이 들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끼를 잡으러 육지에 다녀오고 토끼의 꾀에 넘어가기도 하지만, 결국엔 별주부의 충정 덕분에 용왕의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판소리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어느 곳에든 병들거나 굽은 부분은 있게 마련이고, 그런 만큼 교정공무원처럼 그 지점을 보듬고 사살이 돋게 하는 역할을 해 주는 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안이호)  
소리꾼답게 판소리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교정공무원에게 신박한 응원을 건넨 이날치의 다음 행보는 어떨까. 미리 계획을 세워 두고 움직이는 밴드가 아니므로 사실 이날치가 어느 지점에서 어떤 음악을 터트릴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확실한 건 한 시대를 몰아쳤던 ‘수궁가’를 비롯해 판소리 다섯 마당에서 가져온 이야기가 아닌 요즘 시대의 이야기를 만들자는 데까지는 멤버들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 그래서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더욱 예민하게 감각하고 있다는 이날치의 새로운 이야기를 기대해도 좋겠다.

##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현신의 힘

기적은 누군가의 현신을 통해 일어납니다.

이름 모를 타인을 생각하며 메마른 땅에

나무를 심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사람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한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더 나은 세상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길에서 욕심 없이

최선을 다한 작은 영웅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작은 영웅들이

만드는

기적

자신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평범한 이들의

현신

타인의 행복을 위한

순수한 열정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

**DEVOTION,**  
The power  
to make miracles

사막을  
숲으로 만드는  
우직함

더불어 사는 세상을  
실천 하는 이들

대가 없는  
희생



일상을 펼치다  
•  
부캐를 부탁해  
글 민경미 사진 홍승진

## 목공예로 빛은

### 가족 사랑의 장인, '권문술사'

법무연수원 교위 문규종  
서울구치소 교위 권미경  
교정공무원 가족

주말에만 완전체가 되는 가족에게  
'함께'보다 애틋한 단어가 또 있을까.  
근무지가 달라 주말부부로 지내는  
법무연수원 문규종 교위와  
서울구치소 권미경 교위 가족이 특별한  
시간을 함께했다. 여느 가족보다  
함께하는 시간의 총합은 적을지언정  
가족애의 밀도와 농도만은 부족하지 않도록  
목공예로 단단하게 빛어낸 가족 사랑 체험기.



※ 6월호 '부캐를 부탁해'의 목공예 체험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이뤄졌으며,  
목공방 '동근작업실'을 단독으로 예약해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 '한 방'이 있는 이벤트 장인의 깜짝 서프라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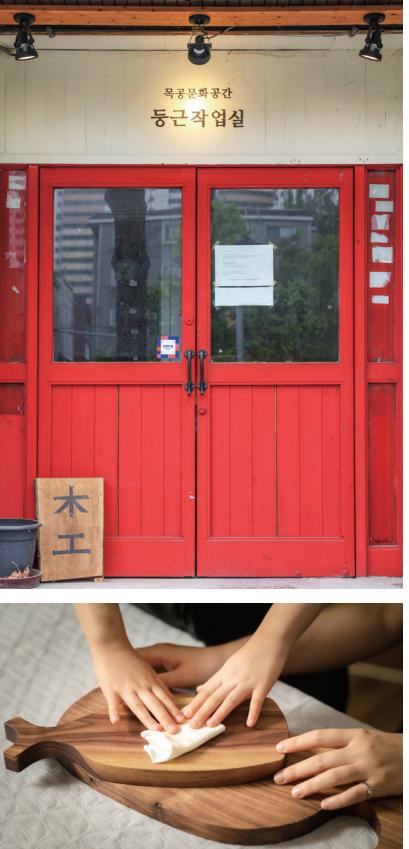
비가 잦아들 무렵 가족은 떠들썩한 웃음소리와 함께 도착했다. 목공방이라는 다소 낯선 분위기와 처음 보는 이들 속에서 목소리 톤은 낮아졌지만, 아이들의 이야기는 계속됐고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은 모두 웃고 있었다.

"오는 내내 아이들이 둘째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 평일 대낮에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신났던 모양이에요."

교정공무원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을 준비하는 스터디 모임에서 만나 교도관 부부가 된 지금으로 11년째인 문규종 교위와 권미경 교위. 두 사람은 청주에서 함께 산 3년여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주말부부로 살았다.

"아내는 청주여자교도소, 저는 청주교도소에 근무하던 때가 가족이 유일하게 함께 살던 시기였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유독 마음 아픈 장면 하나가 떠올라요. 당시엔 근무 중에 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었는데, 하루는 근무를 마치고 휴대폰을 열어 보니 큰아이 유치원 번호가 여러 번 찍혀 있더라고요. 갑자기 열이 나는 아이에게 해열제를 처방하려면 부모 동의가 필요 한데, 둘 다 근무 중이라 연락이 안 되는 바람에 퇴근 후에야 부랴부랴 병원에 갔었죠."

그 일을 계기로 육아휴직을 신청해 2년 동안 육아를 전담했다는 문규종 교위는 이후 근무지가 바뀌면서 다시 떨어져 살게 됐지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한층 각별해졌다. 월간 <교정>의 '부캐를 부탁해' 코너에 신청하게 된 것도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바람에서였다. 권미경 교위의 말에 따르면 문규종 교위는 평소 이벤트를 자주 하진 않지만 한번 할 때 감동



# Wood craft



을 ‘세계’ 주는 스타일이라고 한다. 10년 넘게 살면서 꽃 선물을 받은 건 단 한 번이지만 평생 잊지 못할 크기의 장미 다발인 데다 평상시 여려모로 도움을 받는 친정엄마에게도 꽃다발을 선물해 감동이 몇 배는 더 크게 다가왔다는 것. 이번 ‘부캐를 부탁해’ 또한 참여 신청 부터 체험 내용까지 깜짝 이벤트로 문규종 교위 혼자 준비하고 권미경 교위와 아이들에게는 촬영 장소와 일정까지 모두 정해진 후에야 공개했다.

“몇 달 전 우연히 도자기공예를 체험했어요. 각자 만들고 싶은 모양의 컵을 만든 다음 집에 가져와 잘 보이는 곳에 두었는데, 볼 때마다 그날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목공예에 도전해 보고 싶었죠.”

특별히 타고난 손재주가 없어도 아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연금술사로 변신을 시도하는 게 부모인 법. 도자기공예로 자신감을 텁재한 부부는 내친 김에 부캐명까지 ‘권문술사’로 짓고 목공예에 도전했다.

#### 목공예도, 가족 사랑도 ‘곱고 부드럽게’

이날 ‘권문술사’가 두 아이 현호(11세), 현아(9세)와 만든 목공예품은 삼단 필통과 고래 도마.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 목공예로 금메달을 딴 전력이 있는 목공예 장인 김종훈 목수와 그의 제자 박은영 목수의 지도 아래 수납함이 3개인 독특한 디자인의 필통은 문규종 교위와 현호가, 비교적 과정이 단순한 고래 도마는 권미경 교위와 현아가 만들기로 했다.

첫 번째 순서는 편편한 나무를 원하는 모양에 맞게 재단하는 것. 진한 갈색 무늬가 자연스럽고 촉감이 좋아 아이들과 함께 목공예를 할 때 추천한다는 국내산 호두나무의 향이 공방에 은은하게 번졌다. 재단한 나무의 단면에 접착제를 발라 수납함으로 만드는 과정은 현호가 맡았다. 평소 만들기를 좋아하는 데다 장난감 조립으로 숙련된 현호가 그간의 실력을 발휘할 타이밍. 적정량의 접착제를 발라 각이 어긋나지 않은 매끈한 수납함을 완성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좀 더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티카로 실처럼 가느다란 못을 박는 건 아빠 문규종 교위의 몫. 문규종 교위와 현호가 필통이 될 3개의 수납함을 완성하는 사이 옆 테이블에서는 두껍고 넓적했던 호두나무 목재가 엄마 고래와 아기 고래 모양의 도마 두 개로 탈바꿈했다. 다음은 샌딩 작업을 통해 거칠거칠한 단면을 매끄럽게 다듬을 차례. 문규종 교위는 오늘의 체험 중 샌딩을 가장 기억에 남는 과정으로 꼽았다.

“원하는 디자인에 맞게 나무를 자르고 접착제로 모양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맛봤다면, 샌딩으로 거칠었던 나무 표면을



모든 순간이  
기억에 남겠지만  
특히 오늘 가족이 함께  
맡았던 나무 냄새는  
오래오래 잊지 못할  
거예요.



보드랍게 만드는 동안에는 본의 아니게 가족에게 서운했거나 뾰족해 있던 마음까지 곱게 다듬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함께하는 시간이 덧대지면서 가족 사랑이 그윽해지듯 샌딩 후 매끈해진 필통과 도마에 천연 오일을 덧바르자 한층 깊은 색감이 도드라졌다. 목공예를 시작하기 전만 해도 ‘잘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고개만 갸웃거리던 현호와 현아의 입에서도 마침내 만족스러운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쯤 되면 부캐 ‘권문술사’로의 변신도 성공적이라 할 수 있겠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집중을 잘해서 놀랍고 기특했어요. 주변에서 흔하게 보는 나무를 이용해 필통과 도마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함께해서 좋았고요. 모든 순간이 기억에 남겠지만 특히 오늘 가족이 함께 맡았던 나무 냄새는 오래오래 잊지 못할 거예요.”

권미경 교위의 몽클한 소감에 이어 현호와 현아도 직접 만든 필통과 도마에 대한 애정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오늘 침착함이 유독 돋보여 두 목수의 칭찬을 듬뿍 받은 현호는 아빠와 함께 정성껏 만든 필통에 자신이 아끼는 필기구를 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그마한 손으로 마지막까지 도마에 꼼꼼하게 오일을 바른 현아는 가끔 엄마와 함께 만드는 쿠키를 예쁘게 장식해서 먹거나 달걀말이를 올리면 좋겠다며 활짝 웃었다.

오늘 ‘권문술사’가 두 아이와 함께 만든 삼단 필통과 고래 도마는 아마도 아이들이 바라는 대로 가족의 일상 속에서 제 몫을 톡톡히 해내는 것은 물론이고 한동안 추억이란 이름으로 가족을 단단히 묶어줄 것이다. 삼단 필통에 꽂아 둔 필기구는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써 나갈 것이고, 고래 도마에는 음식뿐만 아니라 추억이라는 이름의 이야기가 매번 토펑처럼 엎어질 것이다.

#### ‘부캐를 부탁해’ 코너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부캐를 부탁해’는 또 다른 삶인 부캐릭터(부캐) 트렌드에 발맞춰 꿈꿔 온 자신의 부캐를 만들어 보고 체험하는 코너입니다. 평소 하고 싶었던 활동,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 보며 지친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세요. ‘부캐를 부탁해’ 코너에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참여 신청 방법 correct2015@naver.com으로  
신청(소속 기관, 이름, 직급, 연락처 필수 기재)



마음을  
모으면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김도년(경북북부제2교도소 보안과 교감)

누구든 살면서 여러 종류의 걸림돌과  
위기를 만난다. 그럴 때마다  
‘넘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뒤따르기 마련. 32년 차 베テ랑  
교정공무원인 김도년 교감은  
“우리의 지난겨울처럼 힘을 합치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며  
힘차게 후배들을 격려한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당직교감으로 일하고 있는 김도년입니다. 1989년 10월 안동교도소를 통해 교정과 귀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저와 인연이 깊은 곳인데요. 1992년 12월에 배속돼 교도소 개청을 지원했고, 교사·교워·교감 승진을 모두 이곳에서 이뤘습니다. 그 후 2008년부터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북부제1교도소, 안동교도소, 상주교도소를 거쳤고요. 2020년 1월에 다시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돌아왔습니다. 제 교정공무원 생활의 절반이 녹아 있는 이곳에 다시 돌아오면서 더 기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66

아무 생각 없이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쌓이다 보니 정신이 맑아졌고 해결책이 떠올랐죠.

99

Q. **교정공무원 생활 중 닥친  
여러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힘든 상황을 이겨 내도록 돋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소통’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성향과 지위, 맡은 업무에 따라 사안을 바라보는 생각과 시각이 다른데요.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제 생각을 솔직하게 전하면 더 좋은 방향성과 해결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당직교감으로서 보안과 직원들과 수시로 대화하고, 때때로 직원들 사이에서 소통의 통로 역할을 하며 갈등을 중재하고 최선의 합의점을 찾습니다. 제가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계기는 가족들과의 대화였는데요. 임용 초기 여러 가지 고민과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어할 때, 아내가 좀 걷자며 저를 자연으로 이끌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쌓이다 보니 정신이 맑아졌고 해결책이 떠올랐죠. 그때 ‘소통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며 감탄했습니다. 그 뒤로 소통을 제1의 덕목으로 삼으며 모든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Q. **교정공무원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현신의 순간’을  
꼽아 주세요.**

32년간 국민의 안전과 수용자 교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는데요. 지난겨울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 수용자들을 돌봤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345명을 수용한 뒤, 우리 교도소 직원들은 격리팀과 비격리팀으로 나누어 근무했습니다. 그중 격리팀은 총 7개 조로 나눠 3일 연속으로 수용자를 돌본 후 14일 자가 격리하는 식으로 업무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비격리팀은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밤낮없이 격리팀과 수용자를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갑작스럽게 주어진 낮선 임무에 당황했고, 확진 수용자를 이감한 이후에는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250여 명의 직원이 하나로 뜰뜰 뭉쳐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덕분에 지난 2월 9일, 모든 수용자가 완치돼 서울동부구치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도 없었죠. 만약 직원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고비를 넘기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직원이 현신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렇기에 지난겨울의 일을 가장 보람찼던 현신의 순간으로 꼽고 싶습니다.

**Q. 교정공무원 생활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먼저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료들의 어려움과 갈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다 보면 집단지성이 발현돼 더 좋은 방안이 나오기 쉽습니다. 아울러 주변 사람들이 그 직원의 어려움을 알고, 그와 관련된 것들에 배려심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러니 무엇이든 혼자 앓지 말고 주변과 적극적으로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이와 함께 ‘지·덕·체를 위해 노력하라’는 말도 전하고 싶습니다. 꾸준한 공부와 경험으로 내가 하는 일의 전문가로 거듭나고, 주변 사람들과 수용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꾸며, 성실한 수련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한다면 미래가 더욱 밝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건강한 정신이 깃들고,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도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2016년부터 하루 4~5시간씩, 한 번에 20km 정도를 꾸준히 걷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15kg 이상 몸무게가 줄었고, 일상에 활력이 넘쳐나죠. 후배들도 자신에게 잘 맞는 운동으로 강건한 체력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Q. 앞으로 이루고 싶은 바람과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 목표는 ‘오래 걷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 쓰는 아이디가 ‘보생와사(歩生臥死)’입니다.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는 의미인데요. 하루에 20km씩 걸을 수 있는 지금이 무척 행복하고, 대자연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2년 남은 교정공무원 생활을 건강하게 마무리해서 동료와 수용자에게 도움이 된 선배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더불어 바람이 하나 더 있다면, 제가 퇴직하기 전에 자식들이 모두 교정공무원이 됐으면 합니다. 딸은 2019년 7급 교정공무원에 합격해 근무하고 있고, 아들은 열심히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함께 걸으려는 두 아이에게 정말 감사한데요. 아들도 조만간 교정공무원에 임용돼 명실상부 대를 이어 국민과 수용자에게 봉사하는 ‘교정 가족’으로 거듭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Q. 베테랑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교도소의 주 복도에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내 마음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 담겨 있죠. 업무를 하다 보면 누구나 힘든 상황에 직면합니다. 보통은 처한 상황을 원망하고 비관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긍정과 부정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갈립니다. 이미 벌어진 상황은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지만, 상황을 대하는 나의 마음은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면한 상황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 봅시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더불어 직원들이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면, 이를 지켜보는 수용자들도 자연스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교정공무원이 수용자 교화의 주체이기 때문이죠. 이렇듯 일체유심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수용자들의 삶까지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기세요. 모두가 인정하는 교정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후배들, 무엇이든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 그대들 '덕분에' 어려움을 넘겼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진료를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덕분에' 챌린지.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이 챌린지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작년 겨울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수용해

완치시킨 뒤 서울동부구치소로 무사히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그 남다른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월간 <교정>

선물 보따리를 들고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찾았다.

## 모범적인 협신과 용기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2020년 12월 28일을 맞이하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직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345명이 이곳으로 이감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들 모두 무증상 및 경증 환자이기는 했지만, 감염성이 높은 코로나19의 특성상 철저한 방역과 수용자 관리가 요구됐다. 이는 곧 최진규 소장을 비롯한 250여 명 직원들의 업무 가중으로 이어졌지만,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 공무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했다.

직원들은 격리팀과 비격리팀으로 나뉘었다. 총 7개 조로 편성된 격리팀은 1개 조씩 교도소 안에서 수용자들을 돌보며 3일 연속 근무한 뒤 2주간 자가 격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온몸을 덦는 레벨 D 방호복을 착용해야 했기에 업무 강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근무에 투입된 직원들은 3일 뒤, 하나같이 녹초가 된 채 자가 격리 시설로 향했다. 한편 비격리팀은 격리팀 직원들과 수용자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24시간 물심양면으로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안전한 수용에 필요한 온갖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야 했기에 비격리팀도 격리팀만큼이나 고생했다는 것이 모든 직원의 한결같은 설명이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확진 수용자들은 모두 완치됐고, 지난 2월 9일 서울동부구치소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다. 직원들의 헌신이 빛어 낸 놀라운 기적이다.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월간 <교정>은 미니 선풍기, 무중력 의자, 가습기, 프로바이오틱스, 인바디 체중계, 커피믹스, 운동 밴드, 혈압 측정기 등 다채로운 선물과 함께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찾았다. 뜻밖의 깜짝 선물에 직원들의 감탄이 쏟아졌다. 물론이다.

## 무더운 여름을 한결 시원하게

### '접이식 무선 선풍기'

햇볕이 따스해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여름의 초입이다. 기상청은 별 써부터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어, 여름을 대비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는 경북북부제2교도소도 마찬가지. 이럴 땐 시원한 에어컨은 물론, 어디든 가지고 다니며 활용할 수 있는 무선 선풍기를 구비해 놓는 것이 좋다. 월간 <교정>이 튼튼하고 성능 좋은 접이식 무선 선풍기를 준비한 이유다. 아니나 다를까, 무선 선풍기를 발견한 복지과 김도윤 공업서기보가 한껏 반가운 기색을 드러내며 말한다. "여름철에 보일러를 정비할 때 내부가 상당히 더워서 시원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 한결 쾌적하게 일할 수 있겠네요!" 특히 일반적인 무선 선풍기와 달리 벽이나 고리에 걸 수 있는 스트랩이 달려 있어 더욱 활용도가 좋을 것 같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한편 보안과 정성연 교사도 무선 선풍기를 가장 마음에 드는 ‘원픽’으로 꼽는다. “저는 한 번 완충하면 2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게 느껴지네요. 책상 위에 선이 늘어져 있으면 일하기가 꽤 불편하거든요.” 그러자 의료과 황창원 교위가 “저도 같은 생각”이라며, “필요할 때마다 함께 쓰자”는 말로 맞장구친다. 이날 전달된 접 이식 무선 선풍기 2대는 보다 많은 직원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남녀 휴게실에 각각 한 대씩 배치될 예정이다.

**쌓이는 노곤함, 무중력으로 푸세요**

‘무중력 의자’

더위 속에서 업무에 매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이 스르르 감긴다. 여름은 다른 시기에 비해 기온이 높고 체력 소모가 심한 계절이다. 업무 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틈틈이 휴식을 취하지만, 웬만해서는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이럴 땐 무중력 의자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체의 높이가 상체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위치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어 중력에 따른 허리와 하체의 긴장 상태를 보다 쉽게 해소할 수 있고, 그만큼 휴식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무중력 의자와 마주한 보안과 이정근 교감이 서둘러 자리에 앉아 본다. 주야 교대근무를 하는데다가 요즘 날씨까지 더워져 편안한 휴식이 절실하다는 게 그의 이야기. 편안한 자세를 경험한 그의 표정이 금세 밝아진다. “잠깐 누워 있었는데도 피로가 풀리네요!” 뒤이어 보안과 이경희 교사도 의자를 체험해 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거린다. “특히 야간 근무할 때 짬이 날 때마다 앉아서 쉬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며 동료애가 더욱 끈끈해진 경북북부 제2교도소 직원들이 이 말을 놓칠 리 없다. 무중력 의자 체험에 동참한 총무과 천정우 교도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보안과의 두 사람을 바라본다. “이 정도면 보안과에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천정우 교도의 바람대로 보안과에 놓이게 된 무중력 의자는 밤낮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피로를 개운하게 풀어 줄 것이다.



간편하게 챙기는 일상의 건강

‘가습기·프로바이오틱스’

에어컨은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돋지만, 습기가 필요 이상으로 날아가면 목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그렇다고 습도 조절을 위해 창문을 열어 놓을 수도 없는 일. 가습기는 이런 상황을 해결 할 수 있는 열쇠다. 특히 이번에 전달한 자연 기화식 가습기는 공기 와 먼지를 뺏아들이고 세균보다 작은 수분 입자만 배출해 실내 환경 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든다. 사회복귀과 윤성두 교위가 “실 내 근무가 많은 직원들에게 좋은 선물”이라며 기뻐하자, 의료과 이 봉섭 교사가 “여름철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데 상당한 도 움이 될 것 같다”며 고개를 끄덕인다. 가습기의 부피가 작고 무겁지 않은 만큼,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2대의 가습기를 그때그때 근무 상황에 알맞게 배치해 일터의 쾌적함을 높일 생각이다.

한편 하루 한 포로 장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게 될 프로바이오틱스는 누구나 좋아하는 아이템이다. 이미 프로바이오틱스를 경험한 직원들은 “현대인들의 필수 건강기능식품 중 하나”라며 선물에 커다란 만족감을 표했다. 특히 이번에 전달된 프로바이오틱스는 한국인의 장 환경에 맞춰 개발된 제품이기에 그 효과가 더욱 좋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과 박재우 교사가 “장이 편안하면 하루가 편안해진다”며 동료들이 꾸준하게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혔다. 그의 말처럼 전 직원에게 고루 전달된 프로바이오틱스가 경북북부제2교도소의 하루를 한층 편안하게 만들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일상을 펼치다

•  
힐링 메신저

글·사진 서영진(여행 칼럼니스트) 사진 협조 경상북도 청송군

## 청아한 자연이 누놓은 '비경의 고을' 청송

청송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품은 '비경의 고을'이다. 굽이굽이 흐르는 계곡, 우뚝 솟은 바위마다 지구의 신비로운 과거를 새겨 두었다. 희귀한 지질과 함께 오래된 고택들은 청송의 세월을 묵묵히 대변한다.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솔처럼 푸른' 청송(青松)의 청정한 자연 속에서 지역사회의 안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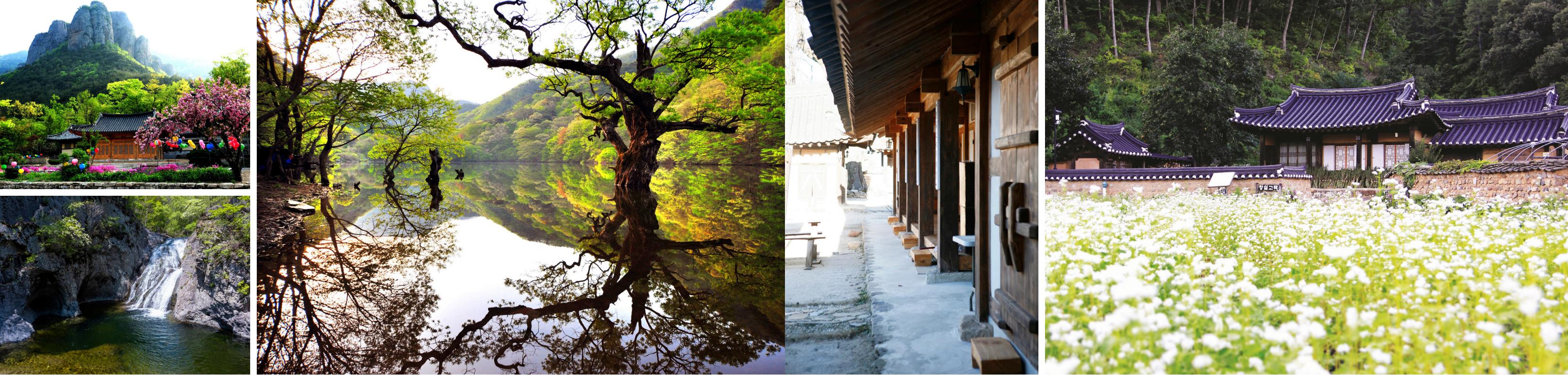
### 백석단 등 신성계곡 희귀 지형

청송은 타임머신을 탄 듯 과거로의 회귀가 흥미진진하다. 1억 년 전 청송은 거대한 호수와 공룡의 땅이었다. 제주도 외에 국내 내륙에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된 곳은 청송이 첫 번째다. 경북북부 제2교도소는 독특한 지형을 간직한 청송의 역사와 궤적을 같이한다. 1993년 기준 청송교도소의 수감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세운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광덕산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세 곳의 경북북부교도소 가운데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중경비 교정시설로서 엄정한 수용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대자연의 미스터리는 청송의 땅 곳곳에 펼쳐져 있다. 청송 서쪽의 신성계곡은 청아한 물줄기와 낯선 퇴적 지형이 뒤섞인 곳이다. 신성계곡은 주왕산과 더불어 세계지질공원의 양대 대표 권역이다. 1억 년 세월의 계곡을 따라 백악기 곡류천, 흰 돌개구명, 공룡 발자국 화석 등이 이어진다.

방호정 갑입곡류천은 백악기의 퇴적 지형이 만들어 낸 구불구불 흰 하천이 인상적이다. 웅기로 치솟은 바위 위에는 방호 조준도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세운 정자가 수려한 풍광 속에 홀로 서 있다. 흰 돌계곡인 백석단은 청송의 숨은 보석으로 사랑받는 최고의 지질 명소다. 흰 퇴적암들과 소용돌이 물길이 항아리처럼 오목한 구멍을 빚어 낸 형상은 외계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신성리 일대는 백악기 공룡들이 서식했던 호수가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남아 있다. 방호정에서 백석단에 이르는 12km 신성계곡길은 청송 8경 중 제1경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 기암절벽 속은 주왕산 국립공원

조선 시대 경상도 관찰사를 지낸 흥여방은 그의 기행문에서 “산세가 용이 날아오르는 것 같고, 냇물은 마치 가려다 오는 것 같다”고 청송 땅을 표현했다. 용이 승천하듯 신령스러운 산세를 지닌 명산이 바로 주왕산이다. 주왕산은 대부분이 협곡이다. 기암단에는 화산 폭발로 분출된 화산재가 굳어진 뒤 침식해 형성된 암석 봉우리들의 모양새다. 주왕산은 웅장한 산세와 함께 넉넉히 둘러보는 사색의 산이다. 주왕산 초입, 대전사에서 바라보면 기암 봉우리는 ‘부처님 손’이라는 별칭답게 절 마당을 감싸듯 솟아 있다. 봉우리는 주왕산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된 당나라 ‘주왕’의 전설이 담겨 있으며 정상부는 노송이 서식한다.

대전사에서 용추폭포까지는 평이한 산책로가 이어진다. 산책로 좌우의 시루봉, 학소대, 용추협곡 등 돌의 향연은 거칠고 아슬아슬하다.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골이 모두 돌로 되어 있어 마음과 눈을 놀라게 한다”며 주왕산의 절경을 칭송했다.

## 왕버들 지키는, 초록의 주산지

청송을 대표하는 빼어난 명승은 주산지다. 300년 세월을 간직한 못은 국가 지정문화재 명승 105호에 등재돼 있다. 오색 단풍으로 유명한 주산지는 여름이면 무성한 녹음의 세상이다.

용추협곡의 주왕산 반대편에는 수려한 절골계곡이 흘러내린다. 주산지는 절골계곡의 들머리에 자리한 저수지다. 1721년 조선 경종 때 준공된 못은 300년 동안 마르지 않는 세월을 지켜 왔다. 산자락에서 흘러내려 한데 모인 물은 농사짓는 데 활용됐다.

산책로를 10여 분 걸어 전망대에 오르면 주산지의 정취가 한눈에 담긴다. 신비의 못은 새벽녘 물안개가 피어오를 때 가장 단아하다. 물속에 뿌리를 둔 왕버들은 주산지의 상징으로 못과 함께한 강건하면서 고즈넉한 자태다. 주산지는 고 김기덕 감독의 영화 <봄여름가을겨울 그리고 봄>의 촬영지로 해외에서도 유명한 곳이다. 데칼코마니를 만들어 내듯 초록과 물이 빛어내는 풍광은 유수한 세월이 흘러 도 경이롭다.

## 송소고택 등 덕천마을 한옥들

고택의 온기는 청송 나들이의 격을 높인다. 파천면 덕천마을은 송소고택 등 청송의 옛집들이 옹기종기 모인 곳이다. 마을 중심에 위치한 송소고택은 청송 심씨가 대를 이어 살던 가옥으로, 경북북부제2교도소 직원들이 가장 추천하는 청송의 명소 중 하나다. 바쁘게 돌아가는 교정 업무에 지칠 때 직원들이 에너지를 채우고자 이따금 찾아가 힐링하는 공간이다.

만석꾼의 후손인 송소 심호택이 1880년경 지은 99칸짜리 한옥은 솟을대문과 빛바랜 흙담이 인상적이다. 청송 심씨는 세종대왕의 비인 소현왕후를 비롯해 왕비와 정승을 두루 배출한 명문대가다.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250호)인 송소고택은 솟을대문 안쪽 작은 담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안채에 드나드는 여인들이 사랑채의 남자들 눈에 띄지 않게 세운 협담으로 송소고택의 주요 볼거리다. 사랑채, 행랑채 등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으며 마당에서 제기차기, 투호 등 전통 놀이를 할 수 있다. 고택을 따라 더딘 산책이 이어지는 덕천마을은 2011년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됐다. 송정고택, 창실고택, 찰방공종택, 경의재 등 옛 한옥이 자리했으며 숙박과 함께 농사짓기, 천연 염색 등 시골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덕천마을 외에 중편선비마을에서도 솔숲과 어우러진 고택들을 만날 수 있으며, 주왕산관광단지 민예촌은 백자 체험을 곁들인 한옥 숙박이 가능하다. 청송읍 내에 소현왕후를 기린 누각인 찬경루도 단아한 한옥 야경을 뽐낸다.

## 톡 쏘는 달기약수로 끓여 낸 닭백숙

청송 달기약수는 우리나라 3대 약수로 손꼽는 곳이다. 부곡리 부곡계곡 일대에는 약수 샘이 10곳이 넘으며 인근 식당들은 달기약수로 끓인 닭백숙과 삼계탕을 내놓는다. 달기약수는 바위틈에서 ‘꼬르륵’ 약수 솟는 소리가 마치 암탉이 알을 낳을 때 내는 소리와 비슷해 ‘달개’라는 이름이 붙은 데서 유래했다.

달기약수는 탄산과 철분을 함유해 톡 쏘는 맛이 있고, 위장병에 특효가 있다고 알려졌다. 달기약수 닭백숙은 1970년대부터 큰 인기를 끌었으며 약수에 포함된 철분 성분이 닭 특유의 잡내와 기름기를 없애 담백함을 더한다. 여기에 인삼, 황기 등 다양한 약재가 들어간 삼계탕은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다. 닭고기를 산니풀 장아찌에 싸 먹는 맛이 독특하며, 이곳 식당들은 닭 가슴살로 ‘닭불고기’를 내놓기도 한다.



# 건강 챙기며 친환경 실천하는 플로깅(plogging) & 채식 라이프

제로 웨이스트,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등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으로 환경을 지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요즘 주목받는 플로깅(plogging)과 채식 라이프는 친환경적 생활 방식을 습관화하게 도와주고 각종 쓰레기를 비롯한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는 지구를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 건강을 지키며 환경보호도 실천할 수 있는 최신 트렌드, 플로깅과 채식 라이프의 면면을 들여다봤다.

## 뛰고 줍고 분리수거하는 일상 속 환경 지키미



쓰레기를 줍는 일은 가장 순수한 환경보호이며 조깅은 일상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요즘 이렇게 실천하기 쉬운 이 두 가지 활동을 합친 ‘플로깅(plogging)’이 유행하고 있다. 플로깅은 ‘줍는다’는 의미의 스웨덴어 ‘풀로카 업(plocka up)’과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걷기,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뜻한다.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돼 북유럽과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 나갔으며 우리나라에도 플로깅을 실천하는 단체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지구를 깨끗이 닦겠다고 나선 ‘와이퍼스(wiperth)’는 미취학 아동부터 60대 어르신까지 함께 활동한다. 이들은 산, 해변, 도심 등 플로깅이 필요한 지역에 모인 뒤 봉투를 들고 뛰며 쓰레기를 줍는다. 20~30대 젊은 층이 많이 활동하는 ‘클린 하이커스(Clean Hikers)’는 등산하며 산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줍는다. 특별히 산에서 실천하는 플로깅으로 단원들은 하산한 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거나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시킨다. 이 외에 어느 단체에도 속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플로깅을 하는 이들도 많다. 퇴근 후 혹은 주말에 집 앞 공원을 뛰거나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것이다. 이들은 플로깅 활동을 영상과 사진으로 남긴 뒤 SNS에 게시해 많은 사람의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플로깅은 환경보호뿐 아니라 운동량이 부족한 현대인에게 몸의 활력을 가져다준다. ‘조깅하다 말고 쓰레기를 줍는 게 과연 운동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겠지만 허리를 굽히는 동작,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등을 뛰는 동작과 같이 반복하면 칼로리 소모가 크다. 쓰레기봉투와 집게만 있으면 환경보호도 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플로깅, 오늘부터 실천해 보면 좋겠다.



## 간헐적 채식으로 환경보호 실천하고 각종 성인병 예방



유엔(UN) 식량농업기구(FAO)는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육식’을 꼽았다. 축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8%를 차지하고 있고, 대규모로 소를 사육하려면 열대우림의 훼손과 엄청난 양의 물 사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과잉된 고기 섭취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비만과 고혈압, 고지혈증 등 각종 성인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최근 생명 존중과 환경보호,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채식 라이프가 각광받고 있다. 사실 육식을 완전히 끊은 채식주의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 우리 주변에는 고기 육수로 만든 국물 요리나 고기 양념을 첨가한 요리 등이 꽤 많아 현실적으로 실천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하루 한끼 정도 채식을 먹는다거나 고기를 먹지 않는 날을 정해 실천하는 등 간헐적 채식을 지향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채소에 풍부한 섬유소는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안정적일 수 있게 도와주고 소화력을 높여 각종 영양소가 몸에 잘 흡수되도록 해 준다. 하지만 채식도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 실천하면 영양소 결핍을 불러온다. 따라서 건강한 채식 라이프를 위해 콩, 멸치, 새우, 채소, 견과류 등 균형 잡힌 채식 식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정공무원이 국민 곁에 있음을 알리는 지름길은 ‘환경 개선’입니다. 이번에 소개한 ‘플로깅과 채식 라이프’에 동참해 봅시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 주세요. 선정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5,000원 상당)을 보내 드립니다.

보내는 곳 이메일(correct2015@naver.com)

### 지구를 지키는 채식 라이프에 동참하세요!

#### 피부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은 채소

채소에는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시금치, 케일 등 잎채소에 함유된 루테인은 핫별으로 인한 피부 염증과 주름살이 생기는 것을 막아 주는 만큼 자외선이 강한 여름에 적당량 섭취하면 좋다.

#### 현지 생산물 구입으로 이산화탄소 줄이기

푸드 마일이란 식품이 생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이동한 거리를 뜻한다. 푸드 마일이 길수록 운송 길이가 길어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푸드 마일이 긴 수입 농산물보다 현지 농산물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 식품 안전성 보장하는 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은 3년간 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기 때문에 식품 안전성을 보장한다. 땅을 보호하며 자란 농산물은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고 이로운 생태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발판이 된다.

#### 소식으로 다이어트와 환경보호를 동시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발생 한다. 적은 양의 요리를 조리해 먹는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은 물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 내 안의 또 다른 나 직장인은 '부캐'를 원한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퇴근 후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는 '부캐' 열풍이 불고 있다. 본래의 캐릭터 외에 새롭게 만든 부차적인 캐릭터라는 뜻이다.

온라인 게임 용어였던 부캐는 지난해 흥미로운 콘텐츠 트렌드로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2021년 현재, 부캐 문화는 '내 안의 새로운 나'를 꿈꾸는 직장인들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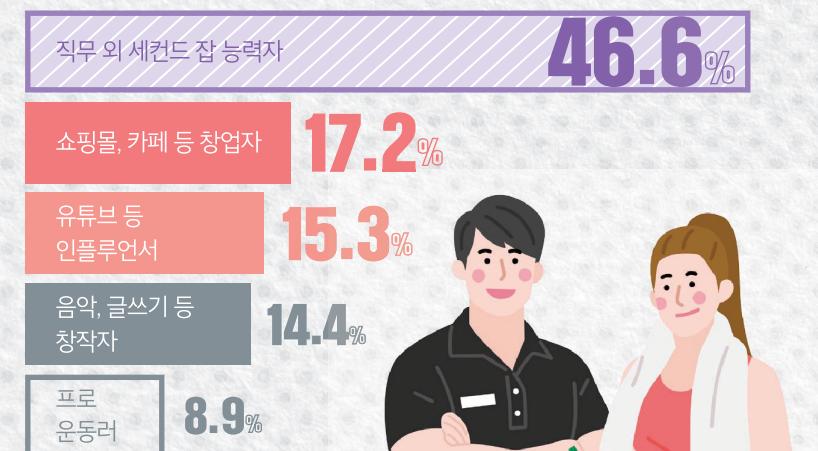
## 엔터테인먼트에서 유통업계까지 '본업'과 '부캐'의 동행

바야흐로 '부캐의 시대'다.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유명 개그맨이 트로트 가수로, 드러머로 변신에 성공한 이래 수많은 연예인이 부캐를 선보이고 있다. 유통업계도 눈길 끄는 캐릭터를 내세우고 '부캐 스토리텔링'을 입혀 기업을 홍보한다. '본업'에 안주하지 않고 위기에 대비해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기도 한다. 정유 외에도 석유화학 사업 등에 꾸준히 투자를 확대하는 S-Oil,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SK가스의 선전이 그 예다.

##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 "부캐 갖고 싶어요"

쳇바퀴 돌듯 출퇴근을 반복하는 직장인의 삶도 점차 변하고 있다. 취업 포털 사람이 직장인 1,2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73.5%가 '부캐를 갖고 싶다고 답했다. 직장 생활에도 대부분 긍정적 영향(95.7%)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직무 외 세컨드 잡 능력자'(46.6%)가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쇼핑몰, 카페 등 창업자'(17.2%), '인스타그램 등 파워 인플루언서'(15.3%), '미술, 음악, 글쓰기 등 창작자'(14.4%), '헬스, 필라테스 등 프로 운동력'(8.9%) 등의 순이었다.

## 직장인이 갖고 싶은 부캐(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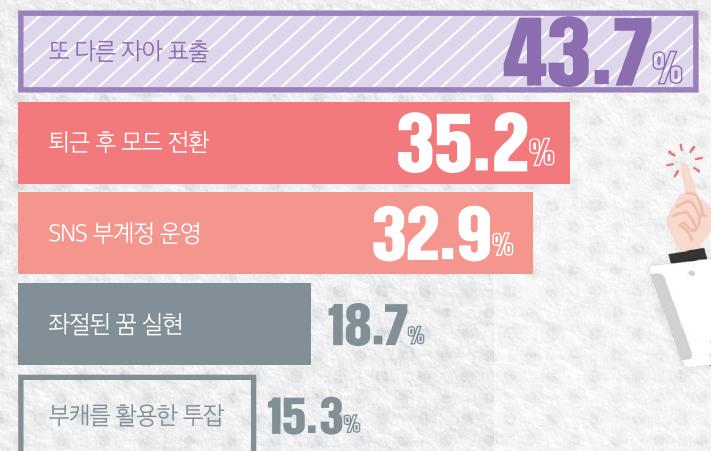
## 성인 남녀 64.9% "부캐 문화 긍정적"

부캐 열풍에 대한 직장인의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성인 남녀 64.9%가 부캐 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16.3%는 현재 부캐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고, 56.3%는 '현재는 없지만 향후 가지고 싶다'고 말해 부캐 소유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캐를 갖고 싶은 이유로는 '또 다른 내 모습을 만들거나 표출하기 위해서'가 응답률 43.7%로 가장 높았으며, '퇴근 후 직장에서와 다른 모습으로 모드 전환'(35.2%),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부계정 운영'(32.9%) 등이 뒤를 이었다.

## 바쁜 현대인의 일상 속 활력을 되찾는 시간

점잖고 단정한 이미지였던 연예인이 또 다른 자아인 부캐로 새로운 도전을 감행하는 모습에서 많은 시청자가 대리 만족을 얻는다. 직장인의 부캐도 마찬가지다. 직장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라면 부캐는 일상의 매너리즘을 깨는 건강한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수용자들과 함께하는 교정공무원의 24시는 긴장의 연속이다. 4교대 근무 체제에서 밤낮이 자주 바뀌니 생체리듬도 무너지기 쉽다. 부캐는 워라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직장인의 스트레스를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퇴근 후 여가를 생산적으로 활용해 제2의 자아실현에 도전하는 기회인 셈이다.

## 부캐가 갖고 싶은 이유(복수 응답)



## 교정공무원을 위한 슬기로운 부캐 찾기

교정공무원이 4교대 근무 시스템 속에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목표와 의지를 갖고 새로운 자기 계발에 도전한다면 다른 직장인들에 비해 더 효과적으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다. 미디어를 통해 숱한 부캐를 구경하기만 했다면, 부캐를 갖고 싶은지, 갖고 싶다면 어떤 부캐를 개발하고 싶은지 나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자.

### 1 현재의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매우 만족한다
- 대체로 만족한다
-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 대체로 불만족스럽다
- 매우 불만족스럽다

### 2 부캐를 갖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자기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 부수입이 필요해서
-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 3 나의 부캐를 갖고 싶다면 어떻게 만들까요?

- 교정 직무와 연관된 활동
- 투잡 등 세컨드 잡
- 동호회 등 커뮤니티
- 취미 생활
- SNS 활동
- 유튜브



## 잠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 급한 자는 문을 찾다가도 문을 보지 못하고 지나친다

“어떤 사람이 자기 그림자가 두렵고 자기 발자국이 싫어 이것들을 떠나 달아나려 했는데, 발을 더 자주 움직일수록 발자국은 더 많아졌고, 빨리 뛰면 뛸수록 그림자는 더 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그것이 자신이 더디게 뛰는 까닭이라 여기며, 쉬지 않고 뛰었고 결국 힘이 빠져 죽고 말았다. 그는 그늘 속에서 쉬면 그림자가 사라지고, 고요하게 있으면 발자국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것은 <장자>의 ‘어부(漁夫)’ 편에 나오는 우화다. 많은 현대인이 이 우화의 ‘어떤 사람’처럼 살아간다.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면서 쉬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다. 괴테는 “급한 자는 문을 찾다가도 문을 보지 못하고 지나친다”고 했다.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워커홀릭으로 지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살기도 한다. 그래서 우화 속 ‘어떤 사람’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자기 돌봄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 제대로 쉴 줄 모르는 한국인



한국인은 세계 최장 시간 노동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이런 사회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쉬는 것이 어쩐지 낯설고 또 제대로 쉬는 법을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상담을 받은 은지 씨 역시 워커홀릭이었다. 그는 좋은 대학을 나와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일에 대한 고민이 심했다. 난생처음 자신이 동료들에 비해 뒤쳐진다는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의 매일 야근하며 더욱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어느 순간 너무나 무기력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번아웃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그런데 상담에서 은지 씨는 쉬려고 해도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몰라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자신이 여가 시간에 하는 일의 대부분이 오히려 에너지를 갉아먹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술과 폭식이었다. 조금 통통한 몸매 때문에 외모 콤플렉스를 가진 그녀는 폭식을 하고 나면 후회로 밤잠을 설쳤다. 그러니 차라리 친구를 만나 술 먹고 과식하느니 집에서 밀린 일이나 하자는 마음을 먹었던 것이다.

### 스스로를 돌보는 휴식의 기술



흔히 일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푸다, 날린다고 하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심신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먼저 자신을 돌보고 회복하는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 잘 쉴 줄 모른다면 먼저 휴식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주중에, 주말에 할 수 있는 건강한 여가 활동을 찾아본다. 두 가지 호르몬에 관해 안다면 여가 활동을 고르는 일이 조금 쉬워질 것이다. 만족을 가져다주지만, 전혀 다른 성질의 두 호르몬이 있다.

하나는 독서나 글쓰기, 명상을 할 때 은은하게 샘솟는 세로토닌이고, 다른 하나는 짜릿한 자극에 의해 뿐어 나오는 도파민이다. 인터넷 게임이나 술, 담배, 폭식, 쇼핑 등이 대표적인 도파민 충족 활동이다. 도파민이 채워지는 경험이라고 모두 잘못은 아니지만, 주말만이라도 세로토닌이 샘솟은 활동으로 심신을 충전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한적한 곳에서의 산책이나 편안한 요가 동작, 부드러운 스트레칭, 안온한 반신욕 같은 세로토닌 충족 활동을 찾아 실천해 보는 것이다. 그마저 힘들 만큼 에너지가 바닥이라면 집 근처의 좋아하는 산책로를 천천히 걸어 보는 정도라도 괜찮을 것이다.

마음을 돌보는 만큼 내 몸을 보살피는 노력도 필요하다. 내 몸을 그저 세상을 사는 도구로만 대하지 말고, 주말만큼은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한껏 아껴 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지내기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무기력, 체력 고갈 같은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 몸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요가나 명상, 필라테스 등을 배우거나 오래 걷기, 등산 등을 즐겁게 실천할 필요가 있다.

### 일과 중 잠깐 휴식하기



주말에 몽땅 몰아서 쉬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일과 중에도, 그리고 퇴근 후에도 휴식은 중요하다.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모를 때면 다음 제시한 목록을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서 소진되는 자신을 돌보고 충전하기 바란다.

- ❶ 가끔 명하니 먼 산을 바라보라. 하늘, 수평선, 해안선, 숲을 바라볼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 ❷ ‘마음챙김’ 명상을 배운다. 일과 중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으니 익혀 본다.
- ❸ 틈틈이 공부가 아닌 즐기는 독서를 해 본다. 공부 목적이 아니니 천천히 음미하며 읽는 것이 좋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감상문을 써 본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 ❹ 수면 시간을 최대한 지킨다. 숙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수면 장애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정 힘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꼭 해결해야 한다.
- ❺ 컴퓨터나 스마트폰 게임이 아닌 보드게임 같은 아날로그 게임을 해 본다. 레고 조립이나 모델 키트(Model Kit) 만들기, 수예 같은 손을 많이 쓰는 놀이는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크다.
- ❻ 심리 기술 가운데 ‘생각 중지’ 훈련을 배워 본다.
- ❼ 편안한 마음이 생기는 음악을 골라 주기적으로 듣는다. 일과 중 세 번 이상 들어 본다.
- ❽ 깊이 몰입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을 찾는다. 주중에도 퇴근 후 한두 차례 도전해 본다.
- ❾ 점심이나 퇴근 후 여유 시간이 짧더라도 가장 편한 친구를 만나 그리 중요하지 않은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
- ❿ 반려동물과 놀기, 가볍게 산책하기, 편안한 트래킹 같은 자기만의 휴식 방법을 하나씩 늘려 나간다.



## 알쓸꿀잡 알아 두면 쓸 데 있는 꿀팁 잡학 사전 : 여름 준비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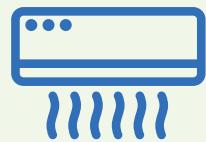
기후변화의 시대, 점차 열대성 기후로 바뀌어 가면서 여름을 나는 게 해가 갈수록 더 고달파지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성급히 찾아온 이상 기운이 더위와의 전쟁을 예고한다.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기 위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 때다. 날이 덥고 습할수록 우리 가족의 건강에 위험신호가 높아진다. 가족 건강과 여름철 안전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소개한다.

### 여름이 온다 우리 집 여름 나기 준비

1

#### 에어컨 필터와 냉각기 점검 필수

겨우내 방치돼 있던 에어컨 속 냉각수는 레지오넬라균으로 오염됐을 확률이 매우 높다. 당뇨와 신부전증 등 만성질환자는 레지오넬라균에 훨씬 취약하다. 여름이 오기 전에 에어컨 냉각기 점검을 받자. 에어컨 필터에 끈 먼지도 주기적인 청소가 필수다. 필터 속 먼지는 고스란히 사람의 입과 코로 들어와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찬 바람이 빠져나가지 못해 더 많은 전기를 소모한다.



2

#### 방충망 점검하고 꿀잠 자자

베란다와 창문에 시공하는 방충망의 수명은 대개 3~4년이다. 낡고 오래되어 부식된 방충망은 해충의 유입 통로가 된다. 방충망 사이를 꼼꼼히 살피고 구멍이 있는 곳에는 보수 테이프나 패치를 붙이자. 부식된 부분을 만졌을 때 과자처럼 부서질 정도가 되었으면 방충망 교체 시기가 온 것이다. 무더운 여름 밤 모기와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대비하자.



3

#### 식중독 예방하는 냉장고 대청소

여름에는 방문보다 냉장고 문을 여는 일이 더 잦아진다. 절전 효과를 위해 지금부터 내부 청소와 함께 음식물을 정리하자. 냉동실 성에는 냉장·냉동 효율을 낮추므로 여름이 오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좋다. 냉장실은 선반을 모두 분리하고 구석구석 베이킹 소다를 이용해 살균·소독한다. 베이킹 소다와 식초, 따뜻한 물을 2:1:1 비율로 섞어서 꼼꼼히 닦아 준다.



4

#### 뽀송뽀송한 여름 세탁물 관리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결한 옷 세탁이 중요하다. 청소를 하지 않은 세탁기는 세균이 자라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 세탁기 거름망을 점검하고 양조 식초나 세탁기 청소제를 넣고 돌려서 세탁조도 청소하자. 겨우내 장롱 속에 잠자던 여름철 이불은 곰팡이나 진드기로 인해 각종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햇볕에 바짝 말리고 탈탈 털어서 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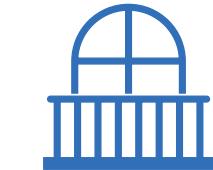


### 여름 장마철 대비 체크리스트



#### 빗물 배수구 주변 깨끗이 정리해요

장마철에는 잦은 비와 높은 습도, 그리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사람뿐 아니라 집도 지친다. 비가 오면 배수구에 흙이나 낙엽 등의 퇴적물과 각종 쓰레기가 쌓여 빗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물이 차거나 역류해 주택이 침수될 위험이 크다. 빗물이 내려가는 물길을 확인하고 배수구 주변 잡동사니를 미리 정리해 두자.



#### 외벽 균열 없는지 미리미리 점검해요

발코니와 베란다 외벽은 빗물 누수에 취약한 부분이다. 실리콘이나 마모된 곳을 보수하고 꼼꼼하게 방수 처리를 하자. 특히 최근에 집수리를 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다면 외벽에 균열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축대와 담장이 무너지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집 안팎을 꼼꼼히 살피고 축대와 담장에 금이 간 곳이 없는지 확인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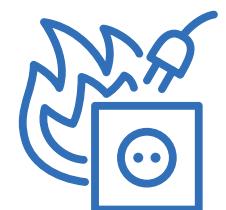
#### 장마철 교통사고 부르는 수막현상 예방해요

타이어 마모가 심할 경우 비가 오면 배수 성능이 떨어져 노면과 타이어가 딱 붙지 않고 약간 떠서 달리는 수막현상이 일어난다. 타이어 옆면에 볼록 튀어나온 삼각형의 꼭짓점을 따라가다 보면 트레드 흄 안에 볼록하게 올라온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타이어 '마모한계선'이라고 한다. 타이어 트레드가 마모한계선과 높이가 거의 같거나 같아진 상태라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



#### 빗길 속 자동차의 '눈' 와이퍼·전조등 확인해요

와이퍼는 장마철 깨끗한 시야 확보에 꼭 필요한 기능으로 수시로 상태를 점검해 두는 게 좋다. 물이나 워셔액을 뿌려 와이퍼 작동을 확인했을 때 세척력이 약하거나 떨림이 심하다면 와이퍼 고무를 교체하자. 전조등과 브레이크등 상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비가 올 때 전조등을 켜면 사고 위험률이 17% 이상 줄어든다고 한다.



#### 장마철 누전 사고, 화재로 이어져요

노후 주택은 전기 시설을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에 특히 취약하다. 낡은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전기 제품 중 세탁기나 에어컨 등의 접지 상태를 미리 확인하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 등의 누전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다. 침수 시에는 반드시 배전반의 전원 스위치를 내리고 접근해야 감전을 막을 수 있다.

# ‘주린이’에게 해 주고 싶은 말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식 투자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 중인 사람은 919만 명으로, 전년보다 300만 명이나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신규 계좌 개설이 폭증하고 있어  
이미 1,000만 명은 가뿐히 넘겼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사람들의 인식

대부분의 사람이 전염병 위기를 겪으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관념이 더 강화된 듯하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주식은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쉽다는 점도 많은 이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이유다.

주식은 잘하기도 어렵지만 잘하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어렵다. 같은 종목을 비슷한 시점에 사도 수익률은 천양지차인 것이 주식이다. 주식이란 것이 원체 어렵기에 조언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널리 통용되는 성공 원칙을 4가지 정도로 나눠 전해 보고자 한다.

## 나의 주식 투자 스타일을 파악하라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 주식 투자 성향도 다르다. 일단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를 알고 그에 맞는 매매 방법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주식을 하나 사 두면 소액만 샀는데도 수시로 가격을 확인하지 못해 안달하는 사람이 있다. 쳐다보지 않으면 폭락하지 않았을까 겁을 먹고, 조금이라도 수익권에 있으면 배시시 웃는 것이다. 반면 수억 원의 전세금 목돈을 주식시장에 넣어 놨는데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사람이 있다. 만약 내가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목돈을 급등락주에 넣는 매매 패턴은 버려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건강만 잃을 수 있다. 같은 이유로 해외 증시나 암호 화폐 투자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필자도 사실 주가를 수시로 확인하는 스타일이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시세를 보고 싶어 수시로 화장실을 들락거린 적이 있을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주로 리츠(REITs)나 배당주 위주로 매매한다. 리츠는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지분에 투자한 뒤 투자자들에게 고배당을 하는 상품이다. 연 5~7%의 배당을 지급하는 상품이 많은데, 배당을 많이 집행하다 보니 주가 변동은 크지 않은 편이다. 손실 확률이 적은 대신 큰돈을 벌기도 어렵지만,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화로워 추천한다.

반대로 ‘나는 대범하고, 손실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주의라면, 공부를 꼼꼼히 한 뒤 다음번 시장 주도주를 찾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20년 이후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등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렇다면 2022년 주도주가 무엇일지 열심히 공부한 다음 매매할 것을 권하고 싶다. 물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 손해 보지 않음 타이밍에 들어가라

필자는 ‘잃어도 되는 돈만 주식 투자 하라’와 같은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세상에 잃어도 되는 돈이란 없다. 주식을 시작했다면 반드시 돈을 별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워런 버핏도 주식 투자에 대한 2가지 조언이 있다면서 “첫째, 손해를 보지 마라. 둘째,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손해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손실에 다다르면 손해 보고 주식을 파는, 이른바 손절매 원칙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아예 손해 보지 않을 상황을 찾는 것이 좋다. 필자는 손해 보지 않을 수 있는 병편 중 하나로 폭락장 때 주식을 매매하고자 조언하고 싶다. 물론 현재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폭락장은 아니다. 만약 지금 주식을 시작한다면, 당장은 배우겠다는 자세로 소액만 투자하다가 나중에 증시가 폭락한다면 그때 준비해 놨던 여유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추천한다. 일단은 예비 투자금의 20% 정도로 시작해 보자. 증시가 떨어질 때 매매하면 당연히 이익을 내기 쉽다. 필자도 20년의 주식 경력 중 가장 많은 돈을 넣었던 시점은 2008년, 그리고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때였다.



## 확신이 없다면 사지 마라

주식을 많이 사고, 오래 버틸 수 있으려면 스스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자고로 남이 추천한 주식을 오래 들고 있기란 어렵다. 아무래도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확신이 없다면 20~30%의 수익만 발생해도 빨리 팔아 버리고 싶다. 이 수익이 금세 사라질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좋은 종목이라면, 혹은 다른 종목을 사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계속 보유하는 것이 낫다. 주식 투자를 조금 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좋은 주식은 다른 종목보다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 아무 종목이나 맹신하란 의미는 아니다. 확신을 가지려면 그 종목을 잘 알아야 한다. 마치 그 회사의 사장이라도 된 것처럼 공부해야 한다. 이유 없이 맹신하는 것은 사이비 종교와 같고, 이유를 확인하고 믿고 기다리는 것만이 투자다.



## 절세 혜택 있는 ISA 계좌 만들자

주식을 새로 시작하는 투자자라면 ISA 계좌를 만들라고 권한다. ISA 계좌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이 계좌에서 주식을 매매하면 세금 혜택이 있다. 일단은 배당소득세나 금융소득세에 대해서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수익의 200만~400만 원이 비과세되고, 200만~4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율을 매긴다.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는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할 계획이다. 연 수익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에서 5,000만 원을 뺀 나머지 수익에서 20%를 과세할 예정이다. 그 시대가 되면 ISA 계좌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참고로 ISA 계좌는 매년 2,000만 원씩만 입금할 수 있다. 지금만 들어 두면 2023년에는 6,000만 원을 입금할 수 있으니 당장은 필요가 없을지라도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 TV가 아닌 넷플릭스 보는 시대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를 비롯한 OTT 서비스는  
이제 현상이 아닌 일상

“요즘 넷플릭스 뭐 봐?”라는 물음이 안부 인사처럼 자연스럽다. ‘몰아보기’가 아니라 ‘빈지와칭(binge-watching)’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태초부터 썼던 언어처럼 손쉽게 발음하는 것도 이제 흔한 일이다. ‘넷플릭스 본다’는 말은 이제 ‘TV 본다’는 말보다도 익숙하게 느껴지는 일상이 됐다. 사실 이게 오래된 일은 아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건 2016년 1월이었다. 그러니까 불과 5년여 만에 벌어진 일이다. “요즘 넷플릭스 뭐 봐?”라는 물음이 안부 인사처럼 자연스러워진 것이 말이다.

모든 커피를 스타벅스에서만 마시는 게 아니듯 모든 영상 콘텐츠를 넷플릭스에서만 보는 것도 아니다. 넷플릭스는 OTT 서비스의 주류로 꼽히는 고유명사다. 여기서 OTT란 ‘Over The Top’의 약자로, 즉 셋톱박스(Top)를 넘어선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총칭하는 신조어다. 그러나 전통적인 케이블 채널이나 IPTV가 셋톱박스와 같은 물리적 장치를 대여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과 달리 넷플릭스를 위시한 OTT 서비스는 미디어 콘텐츠를 인터넷 망을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한다.

하고 있는 KT는 OTT 서비스 ‘시즌’을 독자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2012년에 영화 평점 앱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왓챠’는 영화와 드라마 시리즈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OTT 서비스로 변모했다. 그리고 국내에서 독보적인 e-커머스 기업으로 꼽히는 쿠팡이 유료 멤버십 고객에게 제공하는 OTT 서비스 ‘쿠팡 플레이’를 시작했다.

국내 OTT 시장점유율은 지난 2020년 유료 가입자 수가 330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한 넷플릭스가 압도적이다. 국내 OTT 서비스가 넷플릭스의 독주를 막을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단순히 넷플릭스를 이기는 것이 국내 OTT 서비스의 목표는 아닐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대두된 미디어 플랫폼의 변화가 넷플릭스를 통해 빠르게 촉진된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비전을 확보해야 하는 건 영상 플랫폼 산업의 숙명이다. 게다가 넷플릭스만큼 강력한 또 하나의 글로벌 OTT 서비스가 연착륙할 예정이기도 하다. 영토를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려면 지체할 시간이 없다.

## 디즈니플러스가 온다

지난 4월부터였다.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으로 꼽히는 월트디즈니컴퍼니의 OTT 서비스인 ‘디즈니플러스’의 국내 진출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5월부터 서비스될 것이라 전망하는 매체도 있었지만 결국 헛다리를 짚은 것으로 판명됐다. 하지만 올해에는 확실히 국내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 대부분의 중론이다. ‘아브라카다브라’ 같은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다. 지난 4월 28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에 <만달로리안>을 비롯한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의 등급분류 심의 신청이 이뤄졌으며 콘텐츠 제작사 스튜디오앤뉴가 디즈니플러스와 5년간 매년 한 편 이상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2019년 11월에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디즈니플러스는 1년 4개월 만에 구독자 1억 명을 돌파했다. 넷플릭스가 10년 동안 모은 구독자 수를 불과 2년도 안 되는 기간 만에 확보한 것이다. 현재 넷플릭스의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는 디즈니플러스의 폭발적인 성장은 여전히 무궁무진하다. 지금의 성장 지표가 일부 아시아 국가와 동유럽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디즈니플러스의 성장세에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시장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만달로리안> <완다비전> <팔콘 앤 원터 솔저> <로키> 등 <스타워즈> 시리즈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의 스피ноп프로 기획한 디즈니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를 기다리는 국내 팬들은 디즈니플러스의 국내 서비스를 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게다가 디즈니와 퍽사 애니메이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필수적으로 구독해야 할 OTT 서비스로 분류될 가능성도 높다. 디즈니플러스의 국내 서비스는 국내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독주를 막을 라이벌의 등장을 의미하는 셈이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OTT 서비스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의 용호상박이 예견되는 가운데 OTT 서비스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의 유행일지도 모른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반사이익을 본 기업은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같은 OTT 서비스업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아외 활동에 제약이 생긴 만큼 집 안에서 즐길 수 있는 OTT 서비스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의 올해 상반기 성장세는 예상보다 주춤한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백

신 공급이 활발해지고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둔화되면서 장기간 야외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한 반대급부로 실내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만큼 OTT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볼만한 콘텐츠를 거의 다 소비한 구독자들의 흥미를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의 유입이 더딘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코로나19로 아외 활동에 제약이 생긴 만큼 전 세계적인 콘텐츠 제작 여건도 원활하지 않은 탓이다.

결국 넷플릭스도, 디즈니플러스도, 콘텐츠 확보가 경쟁력인 셈이다. 디즈니플러스가 넷플릭스의 선례를 따라 발 빠르게 국내 제작사와 손을 잡고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리고 <킹덤>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로컬 콘텐츠의 사례는 디즈니플러스에도 필요하다. 웨이브와 시즌을 비롯한 국내 OTT 서비스업체들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결국 콘텐츠가 플랫폼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OTT 서비스의 경쟁력은 양질의 콘텐츠를 수급하고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는 셈이다.

OTT 서비스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국제영화제 마켓에서 좋은 영화를 선점하려는 경쟁만큼이나 OTT 서비스 플랫폼의 콘텐츠 수급 경쟁 또한 심화될 것이다. 이런 경쟁은 구독자, 즉 소비자들에게는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그만큼 선택지가 넓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플랫폼마다 지속적인 구독을 고집할 필요도 없다. 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는 플랫폼을 골라서 월마다 구독과 해지를 적절히 선택하면 될 것이다. 물론 번거로운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영상 콘텐츠 소비 방식은 점점 보편화할 것이다. 그러니 소비자 역시 그러한 시장에 빠르게 적응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성가신 광고를 볼 필요도 없다. 세상은 이미 그렇게 변하고 있다. 아니, 이미 변했다.

Health Infographics

## 들리나요? 당신의 귀에서 울리는 건강 적신호

보이지 않으면 사물로부터 멀어지고, 들리지 않으면 사람에게서 멀어진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대화와 소통은 행복한 삶의 필수 요소다.  
귀가 건강하지 못할 때 의사소통의 어려움뿐 아니라 몸의 평형도 깨진다.

### 증이염

- 정의** 증이(고막과 달팽이관 사이)에 염증이 생기는 세균성 감염 질환
- 원인** 바이러스 감염, 감기·비염으로 인한 면역 기능 저하 등
- 증상** 발열과 콧물 등 감기 증상 동반, 귀의 통증과 고름, 귀 먹먹함, 어지럼증
- 예방** 마스크·스카프로 목을 보호하고 개인위생 철저히 관리

### 외이도염

- 정의** 외이도(귓바퀴에서 고막을 잇는 통로) 염증 질환
- 원인** 세균 감염, 알레르기, 피부 질환으로 인한 세균·진균 감염
- 증상** 귓바퀴의 심한 통증과 가려움, 부종·분비물로 인한 일시적 난청
- 예방** 수영 시 귀마개 착용, 수영·목욕 후 건조 주의, 외이도 자극 금지

### 난청

- 정의** 청각이 저하 또는 상실된 상태
- 원인** 염증으로 인한 고막 손상, 증이염, 이어폰 등 고주파수 음향에 지속적 노출
- 증상** 소리가 작게 들리거나 멀게 느껴짐, 말소리가 왜곡되어 들리거나 둥개져 들림
- 예방** 정기적 청력 검사, 이어폰 사용 시 적정 출력 조절, 면역력 강화로 염증 예방

### 이석증(양성자세현증)

- 정의** 이석(평형기능을 담당하는 수만 개의 작은 돌들)의 이탈로 인한 평형감각세포 자극
- 원인** 두부 외상, 과격한 운동 등으로 인한 이석 분리, 노화 및 면역력 저하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
- 증상** 기상 시 현기증, 머리를 숙이거나 위를 쳐다볼 때 어지럼증, 눈 떨림, 식은땀
- 예방** 비타민 D와 칼슘 및 비타민 K 꾸준히 섭취, 수면 습관 개선



Healthy Guide

## 우리 가족 귀 건강 지키는 생활 습관

귀가 아파도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생각해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귓속 염증을 방지하면 소리를 전달하는 구조가 파괴돼 난청이나 이명으로 이어진다.  
때를 놓치면 더 큰 합병증을 유발하므로 조기에 치료받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환절기에 더 조심해요

일교차 크고 면역력 약해져  
귓속 질환 발병 잦아요



Healthy Guide  
01 세균 막아 주는  
보호막, 귀지

일부러 귀를 파지 않아요  
귀 후비개, 면봉, 어떤 것도  
귀에 넣으면 안 돼요



Healthy Guide  
02 샤워·수영 후엔  
자연 건조

귓속에 물이 들어갔을 때에는  
약한 드라이어나 선풍기 바람으로  
자연스럽게 말려요

### 귀 건강 지키는 건강한 생활 습관

- ✓ 스트레스와 소음을 최대한 피하면서 청각을 지켜요
- ✓ 충분한 수면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면역력을 키워요
- ✓ 너무 큰 이어폰 소리는 소음성 난청을 유발해요
- ✓ 흡연은 청신경을 자극하고 만성적 손상을 일으켜요
- ✓ 벌레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이비인후과에 가서 확인해요
- ✓ 손을 자주 씻고 귀는 되도록 만지지 않아요

### 영·유아 귓속 관리

의사소통이 어려운 우리 아이  
귀 건강 관찰하기



Healthy Guide  
03 성장기 아이  
발달과 직결

영·유아의 귓속 질환은  
청각 기능, 언어 발달을  
늦출 수도 있어요



Healthy Guide  
04 부모의 세심한  
관찰 필수

갑자기 TV 소리를 높이거나  
큰 소리로 말한다면  
반드시 전문의에게 진료 받아요

# 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 대상 이운안 교정위원 등 교정공무원·교정위원 18명 수상 영예



**수용자 교화활동에 모범적으로 헌신해 온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을 격려하고, 그 공로를 널리 알림으로써 교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교정대상 시상식이 올해로 39회째를 맞았다. 값진 상패를 품에 안은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18명의 눈빛에는 그간의 행보에 대한 자부심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굳은 각오가 가득 들어차 있었다.**

### 교정 현장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다

지난 5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교정대상 시상식은 그동안 수용자 재범 방지 및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다방면으로 헌신한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을 포상 및 격려하는 자리다. 또한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법무부·서울신문사·KBS한국방송공사가 매년 공동 주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 고광현 서울신문사 사장, 양승동 KBS한국방송공사 사장, 승성신 교정 대상 심사위원장, 그리고 수상자 및 가족 등 60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먼저 개식사에 나선 고광현 서울신문사 사장은 “영광의 주인공이 되신 수상자분들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들의 노고를 세상에 알리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연단에 선 양승동 KBS한국방송공사 사장은 축사를 통해 “강한 책임감으로 소임을 수행하고 있는 교정공무원

과 자원봉사로 헌신하고 있는 교정위원들 덕분에 수용자의 인권이나 날이 향상되고 사회복귀 과정도 점점 더 원만해지고 있다”며 수용자 교화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승성신 교정대상 심사위원장은 이번 수상자 18명을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다. 그는 “교정대상 심사위원회는 법무부에서 추천한 후보자 26명을 대상으로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정도,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적 등 다양한 심사 기준에 따라 신중하고 공정하게 수상자를 선정했다”면서, 그 결과 교정대상 시상식의 최고 영예인 대상에 의정부교도소 이운안 교정위원이 선정됐음을 알려다. 아울러 “앞으로도 심사위원회는 교정 현장 곳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숭고한 분들을 더 많이 발굴하여 포상하겠다”며 수상자들과 가족에게 축하를 전했다.

### 교정은 사회 방위의 중추적 역할

올해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의정부교도소 이운안 교정 위원은 2009년부터 출소자 채용 홍보 및 취업 알선 활동, 취업 지원 상담, 그리고 출소 후 취업자 격려금 전달 등을 통해 출소자의 사회 안착을 지원했다. 아울러 2015년에는 경기도 파주에 출소자 쉼터인 ‘소망의 집’을 개원해 장애인 출소자, 무연고 취업 대기자 등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있다. 대상 수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운안 교정위원은 “수용자들도 국민의 한 사람인 만큼 출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려려면 무엇보다도 먹고사는 문제,

즉 취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취업 지원활동을 통해 출소자와 사회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정공무원 시상에서는 왕현주 교감·김승택 교감·문성권 교감·김종우 교감·정윤희 직업훈련교사·인치건 교감 등 6명이 각각 근정상·성실상·창의상·수법상·교화상·장려상을 수상했다. 이 중 근정상을 수상한 왕현주 교감은 2009년부터 마야중독 수용자 상담, 발달 장애 미혼모 수용자 출산 지원, 교정협의회를 통한 수용자 처우 지원 등 수용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왕현주 교감은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작년 가을에 심리학 석사를 취득했다”며 지금까지 진행해온 수용자 처우 개선 활동을 이어 나가는 동시에 퇴직 후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상담사로서 활동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교정위원 시상의 영예는 총 11명에게 돌아갔다. 권남호·안영목 교정위원은 박애상을, 허둘남·김도안 교정위원은 자비상을 수상했다. 자애상은 남윤초·이덕순 교정위원이, 공로상은 백홍규·김연희 교정위원이 받았다. 봉사상의 영광은 조희석·이종성 교정위원에게 돌아갔으며, 마지막으로 최인석 교정위원이 특별상을 품에 안았다.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을 치하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교정은 범죄자를 교정교화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킴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사회 방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며 전국의 교정인 및 수상자들의 헌신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오 늘 살 하 이 유 도 가 감 늘 사 었 하 다

 요즘 나의 머릿속 화두는 온통 '감사'다. 이런 날은 오지 않을 거라 확신했었다. 불과 1년 6개월 전까지는 당시 나의 내면에는 절망, 실망, 분노, 짜증 등 부정적인 단어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나의 삶에서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졌다. '감사'라는 단어를 통해 강인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충격으로 나의 삶은 이전과 180도 달라졌다. 이 생생한 스토리를 통해 진정으로 내가 깨달은 것을 교정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때는 1년 6개월 전 추석 무렵이었다. 누구에게나 설레는 명절, 나 또한 아름다운 아내와 아홉 살 된 예쁜 공주님과 함께 저가로 향했다. 가족들의 환대 속에서 행복감을 만끽하며 짧지만 그동안 고향에 내려가 보지 못한 죄송함을 잊을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야간 근무를 위해 청주로 복귀를 해야 했다. 신나게 웃고 떠드느라 몸이 달아올랐는지 조금 피곤이 몰려왔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눈치 빠른 아내는 "야간 근무 해야 하는데 피곤하면 안 되니까 편히 쉬면서 가요"라며 대신 운전대를 잡았다.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하고, 아내의 진심 어린 관심에 기분이 좋아 뒷자리에 몸을 실었다.

 명절이라 고속도로는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었다.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다. 잠깐 눈을 감았다 생각했는데 깨어 보니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그러나 이정표는 아직 대전 IC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시간은 오후 3시 10분, 야간 근무 복귀 시간은 오후 5시. 이 정도 속도라면 지각이겠다 싶어 아내에게 잠시 버스전용 차로로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오후 4시가 지났고 신탄진 IC 부근을 간신히 통과했다. 늦으면 명절날 퇴근을 기다리는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 조급함이 들었다. 그런 내 모습을 본 아내도 덩달아 조급함이 얼굴에 물어나기 시작했다.

 아내는 교대 시간 내에 도착해야 한다는 마음에 차선을 이리저리 변경하다가 순간 앞에 있던 버스와 충돌하고 말았다. "쾅! 쾅쾅!" 연이어 벌어진 충돌에 나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다. 누군가 나를 흔들어 눈을 떠 보니 아내는 의식을 잃고 움직임이 없었다. 다행히 아이는 의식이 있고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아내를 흔들어 봤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차량 통제가 시작되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아내를 운전석에서 빼내 응급처치를 진행했다.

 그래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아내를 보며 망연자실해 울고불고할 때였다. 사고 피해 버스에 타고 계시던 현직 의사분이 능수능란하게 응급처치를 해 준 것이다.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호흡이 잡혔고 의식도 곧 돌아올 테니 안심하라는 말에 너무나 감사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수십 번 되뇌며, 이후고 달려온 구급차에 올라타니 아내의 의식이 돌아왔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나는 아이와 아내의 손을 꼭 잡고서 속으로 생각했다.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가게 기회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일 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가 난 지 한 달 후, 우리 가족은 누가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권하지도 시킨 것도 아닌데 노트에 감사 목록을 적기 시작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평소에 느꼈던 감사함에 대해 적었다. 그러자 놀라움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우리 가족이 감사 목록을 작성하고 서로 다독여 주는 사이 집안 분위기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 감사 목록을 쓰기 전까지 나는 야간 근무에 따른 피로감을, 아내는 아이를 보살피며 쌓인 피로감을, 그리고 아이는 다양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부정적인 상황의 반복은 가족끼리 대화하는 시간을 줄였고 집 안 분위기를 침체시켰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 목록을 작성한 이후부터 집안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놀랄 노자가 아니겠는가!

 감사함의 위대함을 알고 나서부터 일상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마법을 부리는지를 깨닫게 됐다. 실제로 내가 현재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감사함을 느끼자 지금까지 고장 한 번 없이 잘 운행되고 있다. 또 아이가 다니는 피아노 학원 선생님에게 아이를 진심으로 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니, 이후에 아이의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다. 내가 한 것이라곤 감사한 일밖에 없는데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니, 너무나 경이롭지 않은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모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만큼 작은 것에서 감사함을 찾아 진심을 다해 보면 어떨까? 비록 아직은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했지만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든든한 사회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끈끈한 정으로 하나 되는 회사가 있어 오늘의 내가 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 이유가 늘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분이 생각의 변화를 통해 감사함 뒤에 찾아오는 놀라움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소중한 작품을  
보내 주세요.

교정공무원 여러분의 생각과  
일상, 이야기를 담은 원고를  
보내 주세요. 투고해 주신 작품은  
독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대나무숲 일기'에 게재됩니다.

보내는 곳  
correct2015@naver.com

원고료  
문화상품권 10만 원



향	상	든	든	한	내	편	민			
가	족	에	게	용	서	를	구	합	니	다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랑은 눈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속상하고, 늘 질해 주고 싶은 마음과 달리 서툰 행동과 실수에 가슴 아파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 떨리는 설렘과 벅참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고 뭉클한 마음에 흘린 눈물 이야기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 어머니는 팔순이 다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서른둘에 누나를, 서른아홉 늦은 나이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열 달 동안 자식을 품고 엄청난 진통과 눈물 속에서 출산하셨습니다. 저희 남매를 낳았을 당시 어머니의 기쁨을 상상해 봅니다. 여든의 노인이 되어 벌어지며 늦게나마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부산에서 나고 자란 저는 질풍노도의 학창 시절을 보내며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 <친구>를 봤습니다. 저는 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너무 멋있어서 아버지 담배에 손을 대고, 또래 친구들과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며 동네 이곳저곳을 누볐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사이 학창 시절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시절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은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스스로 깨닫고 변화하기를 바랐지만 저의 방황은 여전했습니다. 저 자신을 속이고 양심을 저버리기도 했습니다. 눈물 나도록 부끄러운 지난 시절을 돌이켜 보면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후회스럽습니다.



저는 서른다섯에 쇠창살 안에 갇혀 자유를 기다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자신의 무탈함과 안녕을 기원하며 살아온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너무 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마흔셋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한 누나에게도 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가족의 신뢰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누나는 부산에서 광주까지 면회를 오가며 저에게 모든 신경을 쏟았습니다. 여러모로 힘들었겠지만 내색하지 않고 만날 때마다 밝게 웃어줬습니다. 하지만 누나의 몸에 무리가 갔고 결국 유산하게 됐습니다. 저로 인해 잘못됐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했을 누나와 매형에게 눈물로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우리 가족에게는 큰 아픔과 쓰라린 상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끈끈한 가족애 덕분에 우리 가족은 뭉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행복을 몰랐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일임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에 휩싸여 빠른 성공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다는 의욕만 앞섰지, 제대로 용돈 한번 드리지 못하고 매번 가족들에게 도움만 받았습니다. 오히려 누나가 집안의 가장 역할을 도맡아 했습니다.



저는 4년 6개월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가족의 믿음과 신의를 저버린 못난 아들이고 철부지 동생입니다.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매형은 제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서신을 교환하며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의 행동을 뒤틀어보며 변화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노력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 행동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책과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제 36년 인생에 독서는 없었으나 유치장에서 누나가 보내준 책들을 읽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혜의 힘을 알게 됐고 배움의 중요성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내 편’이 있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치부를 가려 주고 어떠한 희생도 마주하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반대로 저에게 등을 진 채 귀를 막고 이야기를 들어 주지 않는 적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제가 먼저 귀를 내어 주고 이해하며 한편이 되려고 합니다.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가족의 소중함과 일상의 행복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애쓰고 타인을 의식하며 관심을 받으려고 과시욕을 부리며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복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서른여섯, 인생의 아슬아슬한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저는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년, 10년 뒤 계획을 세우고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려고 합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라는 말을 되새겨 봅니다. 저에게는 가족의 품이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삶이라는 여행에서 방향을 잊지 않고 꾫꼿하게 전진하겠습니다. 지금의 여정을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 교정공무원의 직장-가정 갈등이 조직현신에 미치는 영향: 직무소진의 매개효과 중심으로\*②

김미선\*\*·박성수\*\*\*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III. 연구의 설계 및 방법

**IV. 연구 결과****V. 결론 및 제언**

\* 교정연구 제29권 제2호 통권 제83호에 실린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제1저자.

\*\*\*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교신저자.

▶ 접수일(2019. 6. 2.), 심사일(2019. 6. 20.), 수정일(2019. 6. 25),  
개제확정일(2019. 6. 26.)**IV. 연구 결과****1. 확인적 요인분석**

이 연구의 가설검증을 하기 전, 연구에 사용한 변수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모형의 적합도 향상을 위해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하였다. 표준화된 회귀계수(요인부하량)가 0.5이하에 해당되는 문항과 다중상관자승(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값이 0.4미만에 해당되는 문항을 검토하였다. 두 가지 요인 중 하나라도 부합되지 않는 문항들은 제거하여 모형의 적합도 향상을 고려하였다. <표 3> 측정모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총 7개의 문항을 제외하면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잠재변수와 측정변수는 통계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lt;표 3&gt; 측정모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경로	표준화계수	S.E.	C.R.	SMC
조직가정갈등 1	← 조직 가정갈등	.735	.094	14.467
조직가정갈등 2		.723	.089	14.283
조직가정갈등 3		.782	.088	15.149
조직가정갈등 4		.745	.081	14.626
조직가정갈등 5		.651	.077	13.123
조직가정갈등 6		.645	준거변수	-
직무소진 1	← 직무 소진	.781	.053	19.423
직무소진 2		.828	.055	20.845
직무소진 3		.833	.055	20.992
직무소진 4		.737	.054	18.138
직무소진 5		.778	준거변수	-
가치수용 1	← 가치 수용	.866	.092	15.834
가치수용 2		.870	.095	15.875
가치수용 3		.689	.094	13.526
가치수용 4		.869	.093	15.871
가치수용 5		.473	.076	9.975
가치수용 6		.605	.080	12.233
가치수용 7		.611	준거변수	-
현신자발성 1	← 현신 자발성	.665	.094	11.641
현신자발성 2		.717	.085	12.076
현신자발성 3		.578	.071	10.584
현신자발성 4		.291	.092	5.845
현신자발성 5		.278	.087	5.616
현신자발성 6	← 충성심	.643	준거변수	-
충성심 1		.722	.133	7.496
충성심 2		.278	.070	5.178
충성심 3		.713	준거변수	-
모형의 적합도	CMIN/p값=4.628/0.000, NFI=.819, CFI=.851 IFI=.852, TLI=.820, RMSEA=.081			

7개의 문항을 제거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CMIN/DF=3.294, RMSEA=.064, CFI=.939, NFI=.915, IFI=.939, TLI=.920로 적합도 수준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형의 적합도 수준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를 최종모형으로 하고, 해당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먼저 <표 4>에서 제시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를 보면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범위 이상의 값으로 모든 잠재변수의 신뢰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타당도는 문항을 제거한 이후 측정항목들이 구성개념을 잘 측정한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집중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AVE(평균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과 개념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통상 'AVE≥5, 개념 신뢰도 .7' 이상의 값이면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는 집중타당도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판별타당도는 배병렬(2013: 379)의 저서를 기준으로 잠재변수 간 상관의 제곱( $\Phi^2$ )과 잠재변수 간 AVE를 비교(AVE> $\Phi^2$ )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잠재변수 간 상관이 제일 큰 '현신자발성'과 '충성심'의 값을 제곱하면 .746로 현신자발성, 충성심의 AVE보다 크기 때문에 판별타당도는 약간 문제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현신도를 측정하는 도구의 하위 요인인 현신자발성과 충성심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0.7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외 다른 변수 간의 측정항목들은 요인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이 AVE값보다 높게 나타나 판별타당도를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lt;표 4&gt; 최종모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경로	표준화 계수	S.E.	C.R.	개념 신뢰도	AVE	Cron- bach's alpha
조직가정갈등 1	← 조직 가정갈등	.735	.094	14.463	0.93	.861
조직가정갈등 2		.723	.090	14.278		
조직가정갈등 3		.782	.088	15.141		
조직가정갈등 4		.745	.081	14.607		
조직가정갈등 5		.651	.077	13.124		
조직가정갈등 6		.644	준거 변수	-		
직무소진 1	← 직무 소진	.782	.054	19.414	0.95	.896
직무소진 2		.826	.055	20.730		
직무소진 3		.834	.055	20.957		
직무소진 4		.738	.054	18.112		
직무소진 5		.776	준거 변수	-		

경로	표준화 계수	S.E.	C.R.	개념 신뢰도	AVE	Cron- bach's alpha
가치수용 1	← 가치 수용	.869	.038	26.386	0.94	.892
가치수용 2		.882	.039	26.954		
가치수용 3		.687	.047	18.419		
가치수용 4		.865	준거 변수	-		
현신자발성 1	← 현신 자발성	.663	.087	10.821	0.85	.714
현신자발성 2		.598	.071	10.439		
현신자발성 6		.747	준거 변수	-		
충성심 1	← 충성심	.685	.141	6.376	0.82	.677
충성심 3		.747	준거 변수	-		

&lt;표 5&gt;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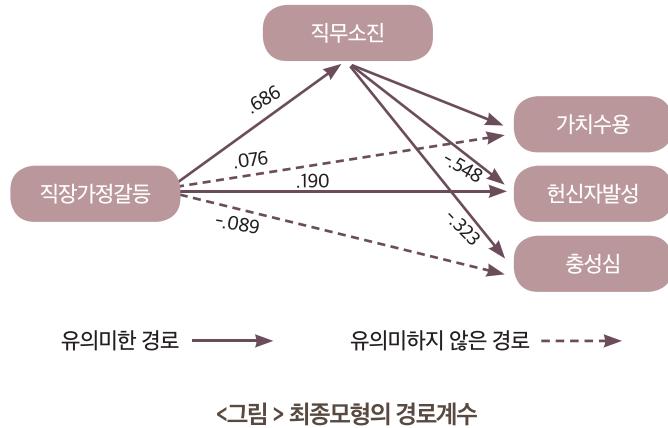
	조직가정갈등	직무소진	가치수용	현신자발성	충성심
조직가정갈등	1				
직무소진	.683	1			
가치수용	-.280	-.409	1		
현신자발성	-.196	-.379	.753	1	
충성심	-.309	-.304	.689	.864	1

**2. 경로분석**

최종모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정공무원은 직장-가정갈등이 높을수록 직무소진(B=.686)이 높은 것으로 보아 교정공무원의 직무소진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직장-가정갈등 감소가 한 축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기존 선행연구와는 달리 교정공무원이 지각하는 직장-가정갈등이 높을수록 현신자발성(B=.190) 수준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신자발성은 교정조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지로서, 직장과 가정간의 역할갈등이 클수록 현신자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직무소진이 높아질수록 조직현신에 해당되는 가치수용(B=-.507), 현신자발성(B=-.548), 충성심(B=-.323)에서 모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정공무원이 현재 직무상 느끼는 소진 상태가 높아질수록 교정조직에 현신하는 정도가 낮아진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조직현신은 단순히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라 조직이 성공하고 번창하도록 개인이 조직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임동호 외, 2014: 197). 따라서 교정공무원의 조직현신을 향상시키는 것은 조직의 발전과 연결되기 때문에 교정공무원의 직무소진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표 6> 최종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경로		표준화 계수	S.E.	C.R.	P
가치수용	← 직장가정갈등	.076	.096	1.158	.247
	← 직무소진	-.507	.080	-7.470	***
현신자발성	← 직장가정갈등	.190	.092	-2.459	.014
	← 직무소진	-.548	.078	-6.794	***
충성심	← 직장가정갈등	-.089	.097	-1.122	.262
	← 직무소진	-.323	.080	-3.987	***
직무소진	← 직장가정갈등	.686	.071	12.005	***



<그림>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표 6>의 경로분석에서 교정공무원들은 직장-가정갈등이 현신자발성에 직접적, 그리고 직무소진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가정갈등이 현신자발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직무소진이 매개변수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계를 더욱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표 7>는 부트스트랩 방법을 활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이며, 교정공무원의 직장가정갈등이 현신자발성과의 관계에서 직무소진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하기 때문에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타 연구와의 차별성은 이 연구에 참여한 교정공무원들은 직장가정갈등이 현신자발성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직장가정갈등이 직무소진을 매개로 하면 현신자발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교정공무원들은 직장과 가정간의 갈등이 심화되어도 공무원이라는 직업특성과 신분상, 조직의 목표를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직장과 가정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결국 직무소진으로 이어지면 결국 조직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결과가 정수 외(2016: 132)의 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

<표 7> 최종모형에 대한 효과 분석 결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현신자발성	← 직장가정갈등	.190	-.378*
	← 직무소진	-.548	-.548
	직무소진	.686	.686

## V. 결론 및 제언

조직이론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정직의 인적자원 관리도 중요시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범죄의 질적인 변화와 더불어 교정처우의 질적 수준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교정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교정 업무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정 공무원에게 관심을 가질 시점인 것이다.(양점미, 2016: 70)

특히 조직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구성원이 조직을 위한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정 보다는 직장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일 가정 양립 또는 일 생활 균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직장으로부터 발생되는 가정과의 갈등도 함께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 이 연구는 교정공무원이 지각하는 직장-가정갈등과 조직현신과의 관련성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교정직은 폐쇄되고 격리된 교정시설의 특수성과 수용자를 관리·통제, 그리고 교화 개선시켜야 하는 이중적 업무 고충으로 일반 공무원과는 차원이 다른 근무환경에서 오는 직장-가정 간의 갈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직장-가정 갈등이 직무소진과 조직현신에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가정 하에 나타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에 참여한 교정공무원은 직장-가정갈등이 높을수록 직무소진이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교정조직은 교대제 근무 및 휴일근무 등의 근무형태와 수용자를 통해 받게 되는 근무환경으로부터 발생되는 직무 스트레스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가정생활을 하는데 긴장감의 연속으로 연결되어 갈등이 초래되고, 이러한 직장가정 갈등이 곧 직무소진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정조직 내 열악한 근무환경과 교정공무원의 처우를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줘야 한다. 하지만 끊임없이 제기된 교정조직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단기간에 보완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박

여 교정조직의 큰 변화를 가져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직장-가정 갈등이 조직에 대한 불만족, 조직의 생산성 감소, 이직 증가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직장-가정 갈등이 결코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닌 조직적인 문제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권혜림, 2010: 168) 이러한 관점 하에 교정공무원의 직무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들의 직장과 가정 두 영역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교정조직 내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를 우선적으로 완화하고 두 영역에서의 역할 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조직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직무소진은 조직현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은 정서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업무의 결과로 생긴 탈진상태로서, 소진 증상을 경험하는 구성원들은 직무로부터의 성취감이 상실되는 현상이 때문에 조직현신도 저하될 수밖에 없는 원리이다.(박수진, 2013: 37)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교정공무원의 직무소진은 조직현신의 하위요인인 가치수용, 현신자발성, 충성심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직무소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수용자의 교정·교화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정공무원의 직무소진을 줄이기 위한 노력 없이는 질 높은 교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교정공무원의 업무특성 상 받을 수 있는 정서적인 소진을 저하시키는 것은 결국 양질의 교정 서비스 제공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교정조직 관리 차원에서 슈퍼바이저를 관리하고, 슈퍼바이저의 적절한 조언과 지지로 교정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격려 등의 정서적 지지로 직무소진 저하를 사전에 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정공무원의 직장-가정갈등이 조직현신 중 현신자발성과의 관계에서만 직무소진의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술했듯이 타 연구와의 차별성은 이 연구에 참여한 교정공무원들은 직장가정갈등이 현신자발성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직장-가정갈등이 직무소진을 매개로 하면 현신자발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교정공무원들은 직장과 가정간의 갈등이 심화되어도 공무원이라는 직업특성과 신분상, 조직의 목표를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직장과 가정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직무소진으로 이어지면 결국 조직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이 연구가 타 연구와의 차별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교정공무원들은 직장에서의 업무수행으로 가정과의 갈등이 발생될 경우, 가정보다는 직장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교정공무원이라는 신분 자체

에서 오는 사명감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고, 교정조직의 분위기 측면에서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모습 등은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게 근무태만 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권리주의적인 문화 때문일 수도 있다.(권혜림, 2010: 42)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직장-가정갈등이 초래되어도 조직의 목표 달성과 성과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직장-가정갈등이 초래되어 직무소진과 결합되면 결국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자발적인 의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정조직 차원에서 직장-가정 갈등 완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증명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교정조직 내에서도 구성원의 직장-가정갈등을 완화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교정조직의 역할은 조직구성원의 직장 생활 내 관리에 머물렀다. 또한 직장 내 직원들의 활동을 잘 관리한다면, 이에 따라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가정되었다. 하지만 조직구성원이 체감하는 직장의 업무가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더 이상 직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직 관리의 영역에서 한 축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교정조직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진종순 외, 2013: 212)

물론 이러한 결과만을 토대로 단순히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직장-가정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더 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객관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보완해야 함은 분명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제상/김광구/김영곤, (2011), '교정공무원의 이직의사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회보 제15권 제4호, pp.309-338.
  - 강희순/이은숙, (2017), '기혼여성 간호사의 직장가정 갈등, 소진과 이직의도 간의 경로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8권 제2호, pp.206-217.
  - 권혜림, (2010), '경찰공무원의 직장-가정 갈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명호 (2016) '스포츠 이벤트 안전업무 종사자의 직무전문성 인식이 조직현신도, 조직유효성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선/박성수, (2015), '여성교정공무원이 조직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교정연구 제66호, pp.145-168.
  - 김영곤/이선우, (2016), '지각된 직장-가정 갈등이 조직 구성원 간의 갈등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의 조절효과 검증', 국가정책연구 제30권 제3호, pp.91-120.
  - 김형선, (2016),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의 공정성, 피드백 수용도, 자기계발 동기, 조직현신 간의 구조관계', 인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 이외의 참고 문헌은 지면 한계상 생략합니다.

# 교정 NEWS

교정 6월호

본부

##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방지와 인권개선 방안 발표



- 일시·장소 5. 6.(목) 15:00~16:10, 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  
참석자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교정본부장,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단장, 교정개혁위원회 위원장 등  
발표자 백진 교수(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발표 내용 •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건축적 원인 분석  
• 교정시설 감염병 방지 대책과 여성 친화적이며 인권중심의 화성여자교도소 설계(안) 제시

## 교정본부장, 남원시 및 전주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일시·장소 5. 12.(수) 11:00, 남원시청 및 전주교도소

### 주요 내용

- 남원교도소 신축 관련 남원시장 면담, 신축 예정부지 점검
- 전주교도소 현장 점검 및 이전 예정부지 확인 등



## 교정본부장, 방역실태 점검 등 정책현장 방문



- 일시·장소 5. 7.(금) 14:30, 청주여자교도소  
주요 내용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단계별 조치계획 및 백신 1차 접종 전반에 관한 실태 점검  
• 간부·직원간담회 개최 및 애로·건의 사항 청취 등

## '신입수용자 흉부방사선, 원격 영상판독을 위한 업무협약'



일시·장소 5. 31.(월) 15:00, 교정본부 회의실

### 협약 기관

법무부-대한결핵협회

### 참석 인원

- 8명  
• 교정본부장 등 4명(법무부)  
• 사무총장 오양섭 등 4명(대한결핵협회)
- 협약 내용  
• 신입수용자 흉부방사선 판독 의뢰 절차 및 판독 비용에 관한 사항  
※ 1건당 1,000원(현재 신입수용자 흉부방사선 판독 비용 : 2,000원 ~ 3,000원)  
• 판독 서비스 제공 및 환자 관리 상담 지원  
• 국가 결핵 관리 예방·진료·치료 사업에 관한 사항

##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신현태

### 전입 직원 신고식 개최

서울지방교정청은 5월 17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전입 직원 신고식을 개최했다. 이경식 청장은 “전입 직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근무하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 서울구치소 / 교사 김상혁

###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서울구치소는 5월 17일 청사 회의실에서 신규 직원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으며, 임용된 신규 직원들에게 축하의 꽃다발과 임명장을 전달했다.

## 안양교도소 / 교위 박준석

###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장 방문

5월 7일 기획재정부 박호성 법사예산과장이 안양교도소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팀은 과밀수용 해소, 노후시설 현대화, 의료처우 개선 등 교정기관의 현안 문제를 파악했다. 또한 의료수용동 및 일반수용동, 취사장, 감시대, 접견실 등을 참관했다.

## 수원구치소 / 교사 홍진석

### 청렴 표어 공모전 개최

수원구치소는 5월 3일부터 14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표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총 120편의 응모 작품은 1, 2차 심사를 거쳤으며, 4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김남중 교감의 표어 ‘조마조마 부정청탁 조아조아 청렴실천’은 배너로 제작해 게시됐으며 직원들의 반부패·청렴 의식에 대한 관심을 제고했다.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이재희

### 부처님 오신 날 기념 기증

서울동부구치소는 5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분과위원회로부터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떡 2,000개를 기증받았다. 우희경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힘든 시기지만 사회 각계각층의 훈훈한 관심과 지원이 수용자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인천구치소 / 교도 이남웅

### 청렴 표어 공모전 개최

인천구치소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표어’ 공모전을 개최해 5월 21일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진행된 이번 청렴 표어 공모전에는 총 87편이 응모했으며, 이 중 최우수 1편, 우수 1편, 장려 2편을 최종 선정했다.



##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김광찬

### 부처님 오신 날 기념 기증

서울남부구치소는 5월 17일 대한불교 서울포교사단 북부교정교화팀으로부터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오렌지 2,000개를 기증받았다. 류기현 소장은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수용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수용자 교정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활을 통해 건전한 시민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의정부교도소 / 교사 최재성

### 신규 직원 임용식 및 전입 직원 신고식 개최

의정부교도소는 5월 17일 신규 직원 임용식 및 전입 직원 신고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 직원 10명, 전입 직원 3명이 직원들의 축하와 함께 꽃다발을 전달받았다. 오광운 소장은 “앞으로 교정 공무원으로서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 여주교도소 / 교사 하승화

### 신규 직원 임용식 및 전입 직원 신고식 개최

여주교도소는 5월 17일 신규 직원 임용식 및 전입 직원 신고식을 개최했다. 남준락 소장은 신규 직원 2명과 전입 직원 2명에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황영웅

###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장 방문

5월 7일 기획재정부 박호성 법사예산과장이 서울남부교도소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 팀은 가족접견실, 수용자 취사장 및 원격화상진료실 등의 현장을 둘러봤다. 이를 통해 과밀 수용 해소, 노후 시설 현대화, 의료 처우 개선 등 교정기관의 현안 문제를 확인하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게 됐다.



## 춘천교도소 / 교사 양진호

### 사랑의 헌혈 행사 실시

춘천교도소는 5월 7일 청사 앞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 보유량이 부족한 가운데, 혈액이 필요한 이웃에

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김일환 소장은 “이번 헌혈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 원주교도소 / 교사 김승현

###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원주교도소는 5월 17일 신규 직원 7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식에서는 신규 직원에게 계급장, 임명장 및 꽃다발을 수여했다. 김남주 소장은 “공직자로서의 새 출발을 축하하며,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에 임하고 성장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 강릉교도소 / 교위 이준영

### 청렴 리플릿 제작 및 배포

강릉교도소는 청렴 리플릿을 제작해 5월 3일 직원용 300부 및 방문 외부인용 150부를 배포했다. 박종관 소장은 “리플릿 제작 등의 적극 행정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무원의 부정 행위로부터 방문 외부인을 보호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영월교도소 / 교도 정욱수

###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영월교도소는 5월 17일 신규 직원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식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자 규모를 최소화해 진행하는 한편, 신규 직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등 환영의 뜻을 전했다.

## 강원북부교도소 / 교위 양인호

### 교정 참여 인사 방문 행사 개최

강원북부교도소는 5월 4일 김계남 속초문화원장

등 교정 참여 인사 11명의 기관 방문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 행사는 예비 교정위원들의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돋고 주요 활동의 비전을 제시하는 등 뜻깊은 자리가 됐다.

## 수원구치소 / 교사 윤우리

### 교정협의회 물품 기증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5월 17일 평택안성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를 위한 간식 등의 물품을 기증 받았다. 바나나 8박스, 컵라면 300개, 초코파이 50박스, 초코바 285개 등 기증된 간식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전 수용자에게 지급됐다.

## 소망교도소 / 배승철

### 전자경비시스템 개선

소망교도소는 5월 26일 전자경비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보다 안정된 수용관리 환경으로 거듭났다. 수동이던 출입문을 자동출입시스템으로 교체했으며, 고화질의 감시 카메라와 모니터를 증설해 수용 관리 능력을 배가했다.

## 창원교도소 / 교도 강정훈

### 성폭력 예방 직장교육 실시

창원교도소는 5월 7일 청사 2층 직원교육실에서

‘성폭력 예방’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성희롱 고충상담원 최정만 교감을 강사로 선정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성범죄 유형,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성폭력 예방 실천 방안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대구교도소 / 교위 이종우

### 신축 이전 주민설명회 개최

대구교도소는 5월 7일 신축 이전 시설(대구 달성군 하빈면) 내 대회의실에서 지역 주민을 초대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문오 달성군수, 신경우 교정정책단장, 오흥군 대구지방교정청장 및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주민과 대구교도소 간의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유철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부산교도소 / 교위 박종철

### 사랑의 손잡기 운동 실시

부산교도소는 5월 12일부터 이를간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실시해 따뜻한 교정행정을 실천했다. 부산교도소는 지난해까지 분기별로 3가정을 방문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힘을 보태고자 올해부터 1가정을 추가해 총 4가정에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포항교도소 / 교사 김병수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포항교도소는 5월 17일 소장실에서 신규 직원 7급 1명, 9급 6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김태수 소장은 “신규 직원들이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해 교정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주영

부처님 오신 날 기념 기증

진주교도소는 5월 17일 수용자용 방역마스크 2만장을 진주불교대학 포교사회로부터 기증받았다. 진주불교대학은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고자 이번 기증을 실시했다.

대구구치소 / 교사 김경민

전입 직원 신고식 개최

대구구치소는 5월 17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자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전입 직원 3명에 대한 신고식을 개최했다. 정재열 소장은 “전입 직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리”면서 앞으로의 성장과 발전을 당부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김세진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5월 3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주정민 소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동참의 의미를 밝혔다.

안동교도소 / 교사 김길수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안동교도소는 5월 17일 소장실에서 신규 직원 7급 1명, 9급 4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금용명 소장은 “교정공무원으로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기 바라며,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 생활을 응원한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도 황지훈

월간 <교정> 취재 및 촬영 진행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5월 21일 월간 <교정> 6월호 취재 및 촬영을 통해 교정 현장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 줬다. 직원들은 ‘교정인 원피’ 코너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선물받았으며, 김도년 교감은 ‘선배에게 듣다’ 코너에서 인터뷰를 통해 업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조덕래

직원 건강검진 실시

김천소년교도소는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건강검진은 주·야간 근무자에 따라 일반 건강검진과 특수 건강검진으로 이뤄졌다. 김천소년교도소는 직원들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박래수

십자가전도단 및 불교분과위원장 물품 기증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5월 11일 십자가전도단으로부터 수용자용 마스크 2,500장을 기증받았다. 또한 5월 14일에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불교분과위원장으로부터 쑥떡 600개를 기증받았다.

울산구치소 / 교위 황정목

적극 행정 직장교육 실시

울산구치소는 5월 3일 조직 내 소극 행정을 혁파하고 적극 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 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했으며, 적극 행정과 공직 가치에 대한 제도를 이해하고 소극 행정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주교도소 / 교위 조경동

부처님 오신 날 기념 기증

경주교도소는 5월 14일 불국사 자원봉사단으로부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빵 400개, 오렌지 음료수 400개 등을 기증받았다. 박원흠 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기증을 결정해 주신 불국사 자원봉사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통영구치소 / 교사 정덕기

㈜케이엠도담 마스크 기증

통영구치소는 5월 7일 ㈜케이엠도담 김경령 대표로부터 마스크 1만장을 기증받았다. 이번에 기증 받은 마스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수용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김경령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수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증 사유를 전했다.

밀양구치소 / 교도 한승훈

창원 소망원 성금 전달

밀양구치소는 5월 21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과 혼 집행 정지자 등을 정성껏 돌보고 있는 창원 소망원을 방문해 성금 30만 원을 전달했다. 밀양구치소는 분기별로 소망원에 격려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주교도소 / 교위 이상빈

화랑훈련 및 합동소방훈련 실시

상주교도소는 5월 11일 ‘2021년 화랑훈련 및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상주시, 육군 제5837부대, 상주경찰서, 상주소방서, 상주교도소가 참여해 국가중요시설인 상주교도소에서 발생 가능한 폭동, 화재,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종합적인 훈련을 실시했다.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조승현

신규 직원 임용식 및 전입 직원 신고식 개최

대전지방교정청은 5월 17일 신규 직원 임용식 및 전입 직원 신고식을 개최했다. 청장실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 및 전입 직원 4명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등 덕담과 감사의 말을 주고받았다. 김진구 청장은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원활한 소통으로 상생·발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교도소 / 교위 김시영

교정협의회 물품 기증

대전교도소는 5월 20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 체육 행사 물품을 기증받았다. ‘효율적인 수용관리를 위한 수용자 체육 행사의 취지에 공감한 교정협의회는 봉기 라면 2,400개 및 컵라면 800개를 기증해 수용자들의 안정된 수용생활을 지원했다.

청주교도소 / 교사 이승기

이달의 모범 교도관 등 시상식 개최

청주교도소는 5월 3일 이달의 모범 교도관으로 선정된 신주현 교위와 교정사고 방지 유공 직원으로 선정된 양철화 교사를 축하하는 시상식을 개최했다. 신주현 교위는 수용 관리 및 교정행정 발전 기여로, 양철화 교사는 수용자 자살기도 방지 유공으로 대전지방교정청장 표창을 받았다. 김재익 소장은 “앞으로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을 선정해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천안교도소 / 교사 전인호

군경 합동 방호진단 실시

천안교도소는 5월 13일 2021년 상반기 국가중요시설인 상주교도소에서 발생 가능한 폭동, 화재,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종합적인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방호진단은 2020년 하반기 국가중요시설 방호 진단 후 속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시설별 군경과 연계된 방호 계획 수립 및 테러 대비 태세 등을 점검하고자 99여단 및 천안서북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위한 방안으로, 지난 1월부터 주기적으로 실시해 현재까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으로도 공주교도소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충주구치소 / 교위 류종근

직원 상황대기실 개선

충주구치소는 5월 11일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직원 상황대기실을 다인실에서 1인실로 개선했다. 이로써 최근 코로나19로 심신에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들을 위해 보다 깨끗하고 편안한 휴식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홍성교도소 / 교사 조경환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홍성교도소는 5월 17일 신규 직원 4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식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신규 직원 중 강호윤 교위시보는 “교정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임용 소감을 전했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강세원

직장 소통 우수 직원 시상식 개최

천안개방교도소는 5월 13일 직원쉼터 표찰 명칭 응모 당선자 및 직장 소통 우수 직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직원쉼터 표찰 명칭 공모에 당선된 이창구 교감, 조덕연 교위, 오종학 교위, 그리고 직장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우수상을 받은 정민호 교위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지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공주교도소 / 교위 이희명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공주교도소는 5월 7일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했다. 이는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 및 잠복기에 있는 직원을 조기에 발견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 교정 NEWS

##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손준성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5월 17일 신규 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신규 직원 김준형, 심지환, 한정현 교도시보는 직원들의 열렬한 환호와 축하를 받았다. 김준형 교도시보는 “논산지소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돼 매우 기쁘고 앞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범 교도관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희 교정본부장은 “전주교도소는 시설이 노후화됐음에도 코로나19에 적절히 대처해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없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있다”라고 격려했다.



##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윤정구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광주지방교정청은 5월 17일 민간 경력 채용자에 대한 신규 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된 직원은 광주청 분류센터 직원으로 선발돼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구지서 청장은 “신규 임용을 축하드리며 본인의 능력과 경력을 발휘해 직장 동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 광주교도소 / 교위 박재석 어린이날 맞이 격려 물품 전달

광주교도소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법무부가 온 어린이집을 방문해 격려 물품을 전달했다. 코로나19로 평소처럼 활발히 지내지 못한 원생들은 선물을 받으며, 환한 웃음을 함께 감사 인사를 하여 참여한 직원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 전주교도소 / 교위 박승훈 교정본부장 정책 현장 방문

5월 12일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전주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및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직원 간담회를 개최해 직원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이영

## 순천교도소 / 교위 김기표 부처님 오신 날 기념 기증

순천교도소는 5월 18일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소 내 청사 앞에서 자비의 떡 기증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극복·건강 업, 함께하는 하모니’라는 주제로 마련됐으며, 교정협의회 종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성 스님으로부터 절편 1,500개를 후원받았다.

## 목포교도소 / 교도 김형창 무안중학교 장학금 전달

목포교도소는 5월 25일 무안중학교 재학생 5명에게 총 1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목포교도소 전 직원의 정성을 모은 기금으로 운용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학업에 임하는 학생을 선발해 매년 2회 전달하고 있다. 정봉수 소장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응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군산교도소 / 교도 김대우 신규 직원 임용식 및 전입 직원 신고식 개최

군산교도소는 5월 17일 신규 직원 임용식 및 전입 직원 신고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꽃다발 수여 등 신규 직원 9급 2명 및 전입 직원 6명을 환영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홍순철 소장은 “군산교도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이어 가길 바란다”고 환영 인사를 전했다.

## 제주교도소 / 교사 황승민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제주교도소는 5월 17일 신규 직원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서호성 소장은 “교도관으로서 첫발을 내디딘 만큼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 원칙에 입각한 수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즐거운 직장 생활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장흥교도소 / 교위 오창용 부처님 오신 날 기념 기증

장흥교도소는 5월 20일 보광사 만오 스님으로부터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컵라면 1,650개를 기증받았다. 박진홍 소장은 “만오 스님께서 기증해 주신 컵라면은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수용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해남교도소 / 교도 박인희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해남교도소는 5월 17일 신규 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진행됐다. 조관성 소장은 “직원들과의 화합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청렴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달라”고 당부의 말과 함께 축하 인사를 전했다.

## 정읍교도소 / 교도 박승현 부처님 오신 날 기념 기증

정읍교도소는 5월 6일 선운사로부터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연등 300개를 기증받았다. 이번 기증은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의미와 함께 수용자 교정교화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기증받은 연등은 주 복도 및 사회복귀동 등 적절한 위치에 설치됐다. 김학봉 소장은 “선운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무명의 마음이 연등을 매개로 한 부처님의 자비와 가르침으로 밝아지듯 정읍교도소도 수용자 교정교화에 매진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소식이 오다  
●  
모범 공무원 소개



## 서울구치소 교감 이희권

이희권 교감은 1991년에 임용된 후 29년간 투철한 국가관과 교도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평소 맑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현재 보안과 배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희권 교감은 보안과 직원들의 근무 상황을 사전에 파악해 근무 일정을 계획하는 등 직원들의 보안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항상 직원들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모범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 부산구치소 교사 오세윤

오세윤 교사는 민원과 영치금 은행 업무 담당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을 가지고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오세훈 교사는 수용자 조○○의 ‘채무 변제 사유로 지인 김○○에게 1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보고문을 접수했다. 이에 관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조○○은 수용 기간 중 가족 및 지인에게 송금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또한 김○○도 조○○과 교류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수용자 간의 금품 수수가 의심된 오세훈 교사는 조○○과 면담 후 수용팀장에게 인계해 교정사고를 예방했다.



## 공주교도소 교사 한상재

한상재 교사는 직업훈련과 작업장려금 담당자로 주요 시책인 수용자 대상 국민연금 납부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독려했다. 수용자 35명이 작업장려금을 국민연금으로 전환해 납부하는 등 근로 작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고해 교도작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각 관공서 및 인근 교육기관에 교도작업 홍보 책자를 비치해 교도작업 제품의 가격 대비 우수성과 AS 관리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더불어 제품 생산 시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작업 지도를 실시해 교도작업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를 향상시켰다.



## 순천교도소 교사 김두진

김두진 교사는 보안과 기동순찰 근무자로 투철한 사명감과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며 수용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모범 교도관이다. 지난 3월 16일, 주 복도 일과 종료 근무 중 의료수용동에서 본 거실로 입실하는 수용자가 기결팀 입구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발견한 김두진 교사는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응급처치를 통해 교정사고를 예방했다.

독자 퀴즈 및  
이벤트

숨은 그림 찾기

아래 그림 속에 숨겨진 그림을  
찾아 표시해 보세요. 숨은 그림  
10개를 찾아 정답을 보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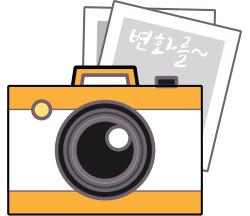


정답 보내는 곳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correct2015@naver.com)

참여방법 퀴즈 정답을 이메일로 송부  
꼭 기재해 주세요!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독자 퀴즈 및 이벤트 참여자 혜택 해피머니 1만 원권 발송



QR 코드를 통해서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다!

도자기, 대형 가구, 생활용품, 공예품 등 수용자들이  
사회 복귀에 대한 희망을 담아 손수 만든  
120여 종의 제품이 한곳에.

보라미몰에는  
특별함이 있다!

하나, 저렴한 가격

이윤 추구보다 수용자의 근로 정신 및 사회 적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저렴합니다.

둘, 우수한 품질

검증된 원재료를 사용하며 수작업으로  
소량 생산하기 때문에 튼튼하고 품질이 우수합니다.

셋, 사회적 가치 실현

근로 의식 함양과 기술 습득을 도와 수용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정착에 기여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보라미몰이 내 손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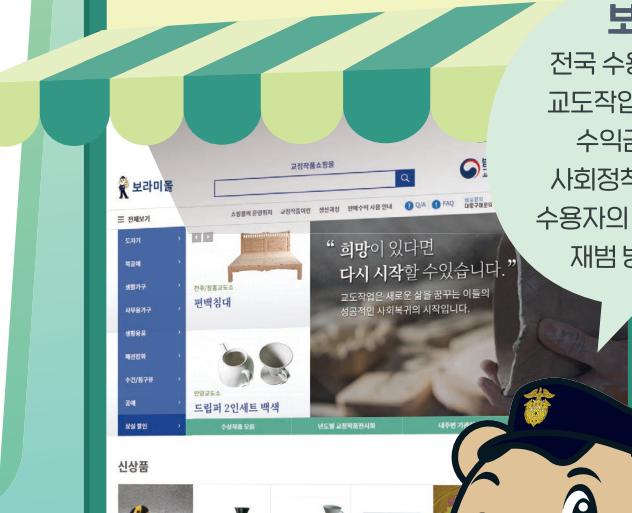


수용자가 희망을 담아 만든 교정작품 쇼핑몰

보라미몰  
corrections-mall.net

보라미몰은

전국 수용자들이 생산하는  
교도작업 제품을 판매하고,  
수익금을 직업훈련과  
사회정착금 등으로 사용해  
수용자의 안정된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이룹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

고귀한 희생  
가슴 깊이  
새깁니다



국가보훈처